

2016년
충청남도 청소년
복합외상경험 실태조사

발간번호(상담)
2016-0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더 설래林

2016년 충청남도 청소년 복합외상경험 실태조사

2016년
충청남도 청소년
복합외상경험 실태조사

「2016년 충청남도 청소년 복합외상경험 실태조사」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100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4층
Tel. (041)554-2130 Fax. (041)556-8704
<http://cnyouth.or.kr>

비매품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더 설래林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주최 충청남도
주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16년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새로운 가치는 더 설래林입니다.

더 설래林은

헤아림, 밧그림, 심울림, 움직임, 반울림, 이끌림의 6개의 작은 숲이 모여

베풀고(베풀다 설 設) **위로하는**(위로하다 래 徠) 더 큰 숲(수풀 임 林)을 만들어가자는 가치를 지닙니다.



2016년 충청남도 청소년 복합외상경험 실태조사

인 쇄 2016년 12월

발 행 2016년 12월

발행인 장 기 수

편집인 이 미 원, 김 수 연, 김 성 수

발행처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100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4층

Tel. (041)554-2130 Fax.(041)556-8704

발간번호(상담)

2016-0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더 설래林

2016년
충청남도 청소년
복합외상경험 실태조사

주최  충청남도

주관  재단
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발 간 사

최근 우리 사회 속에서 대규모 사건·사고, 교통사고,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등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외상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우울 및 불안, 정서조절의 어려움 등 발달 및 적응상의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청소년들에 대해 상담 및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전문 인력 양성과 외상 사건 발생 시 긴급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로 지역사회 내 관심을 제고하고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2016.9.30.시행)가 시행되면서 도내 청소년들이 사회심리적외상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도내 청소년들의 현재 외상경험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를 근거로 지원방안에 대해 제안한 자료로 향후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구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분들과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청소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가 도내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 지원의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미원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2. 이론적 배경	4
1) 아동기 복합외상	4
2)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6
3) 대인관계문제	8
4) 자아탄력성	10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4
2. 측정도구	14
1) 아동기 외상 질문지	14
2) 아동용 외상 후 증상보고	15
3)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16
4) 대인관계문제 척도	17
5) 자아탄력성	17
3. 분석방법	18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2
2.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32
3.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40
4. 대인관계문제	48
5. 자아탄력성	56
6.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64
7. 자아탄력성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65
8.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66

I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70
2. 논의 및 제언	74
참고문헌	76
부록(설문지)	82

표 목차

〈표 1〉 달리 분류되지 않는 극단적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DESNOS)의 진단 기준	7	〈표 26〉 성별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41
〈표 2〉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10	〈표 27〉 소속기관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42
〈표 3〉 아동기 외상 질문지 하위척도	15	〈표 28〉 가족형태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43
〈표 4〉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질문지 하위척도	16	〈표 29〉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44
〈표 5〉 대인관계문제 질문지 하위척도	17	〈표 30〉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45
〈표 6〉 자아탄력성 질문지 하위척도	17	〈표 31〉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46
〈표 7〉 성별·연령 분포	22	〈표 32〉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47
〈표 8〉 소속기관 분포	23	〈표 33〉 대인관계문제 특성	48
〈표 9〉 지역 분포	24	〈표 34〉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49
〈표 10〉 가족형태 분포(다중응답)	25	〈표 35〉 소속기관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50
〈표 11〉 부모 출신국 분포	26	〈표 36〉 가족형태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51
〈표 12〉 가정경제수준 분포	27	〈표 37〉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52
〈표 13〉 국가나 단체에 의한 경제적 지원 분포(다중응답)	28	〈표 38〉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53
〈표 14〉 부모의 물질적·정서적 지원 분포	29	〈표 39〉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54
〈표 15〉 청소년 전화 1388 인지 및 이용여부	30	〈표 40〉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55
〈표 1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 및 이용여부	31	〈표 41〉 자아탄력성 특성	56
〈표 17〉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특성	32	〈표 42〉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	57
〈표 18〉 성별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 경험	33	〈표 43〉 소속기관에 따른 자아탄력성	58
〈표 19〉 소속기관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34	〈표 44〉 가족형태에 따른 자아탄력성	59
〈표 20〉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35	〈표 45〉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자아탄력성	60
〈표 21〉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36	〈표 46〉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른 자아탄력성	61
〈표 22〉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37	〈표 47〉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른 자아탄력성	62
〈표 23〉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38	〈표 48〉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자아탄력성	63
〈표 24〉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39	〈표 49〉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64
〈표 25〉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특성	40	〈표 50〉 자아탄력성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65
		〈표 51〉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66

그림 목차

〈그림 1-1〉 성별 분포	22
〈그림 1-2〉 연령 분포	22
〈그림 2〉 소속기관 분포.....	23
〈그림 3〉 지역 분포.....	24
〈그림 4〉 가족형태 분포.....	25
〈그림 5〉 부모 출신국 분포.....	26
〈그림 6〉 가정경제수준 분포	27
〈그림 7〉 국가나 단체에 의한 경제적 지원 분포(다중응답)	28
〈그림 8-1〉 부모의 물질적 지원 분포.....	29
〈그림 8-2〉 부모의 정서적 지원 분포.....	29
〈그림 9-1〉 청소년 전화 1388 인지여부	30
〈그림 9-2〉 청소년 전화 1388 이용여부	30
〈그림 10-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여부	31
〈그림 10-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여부	31

I. 서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각종 대규모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교통사고,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등 아동·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심리적 외상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리적 외상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용량을 초과하는 데서 비롯된 심리적 위기 상태이다(Everly, 1995). 이러한 심리적 외상은 개인의 성장과정 중 다양한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킨다. 외상을 일으키는 대상이 사람이고 고의성이 개입된 경우 자연에 의한 외상이거나 우연에 의한 사건일 때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Allen, 1995). 학교 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대인 폭력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발달 및 적응상의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되며 대인 폭력의 성격을 띤 외상경험을 복합 외상(Complex Trauma)이라고 한다(안현의, 2007). 이런 복합외상경험에 따른 심리적인 고통은 일회적인 단순 외상에 비해 후유증이 훨씬 더 심각하며 증상도 다양하다(Herman, 1992).

복합외상의 후유증으로는 정동 문제, 행동문제, 신체화, 정신분열과 같은 정신 병리의 발병, 대인관계 문제와 같은 것들이 있다(Zucker, Spinazzola, Blaustein, & Van der Kolk, 2006). 구체적으로는 우울, 불안, 분노, 사회적 철회, 자살시도, 대인관계의 불신감, 수치심, 죄책감, 자존감 상실, 무기력 등이 있다. 또한 정서 조절의 어려움, 자기 파괴적 또는 충동적 행동, 대인관계 손상과 성격적 변화 등도 복합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에 속한다(Briere&Runtz, 1988). 이러한 복합 외상을 발달 단계의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경우에는 성장 후에 비해 외상의 후유증이 더 심각하고, 그 피해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Van der Kolk, Van der Hart와 Burbridge(1994)는 복합외상을 처음 경험한 연령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심각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Finklerhor과 Dziuba-Leatherman(1994)은 발달단계의 외상경험이 성장 후의 다양한 심리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실 예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하는 가정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방임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친부모·양부모나 가까운 친인척에게도 학대를 당하는 상황도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서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2001년 2,105건에서 2006년 5,202건, 2011년 6,058건, 2015년 11,71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 행위자는 2015년 기준으로 부모 9,348건(79.8%), 대리양육자 1,431건(12.2%), 친인척 562건(4.8%), 타인 187건(1.6%)으로 부모 또는 대리양육자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기의 지속적, 반복적인 대인 간 외상경험이 이후의 삶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달 및 적응 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다(김정규, 김중술, 2000; 정지선, 안현희, 2008; 장진이, 2010). 국내·외 많은 연구들에서 복합외상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복합외상경험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영향 과정에서 조절 효과를 내는 변인들의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충남지역 아동·청소년들의 연구 또한 없는 상태이다.

충남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 기관으로 지역 내 청소년들의 복합외상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에 대해 제시하고 새로운 지원 방향에 대한 제시를 위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 지역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복합외상경험과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문제,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보호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복합외상의 예방과 치료적 지원을 세우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아동기 복합외상

아동기 외상의 개념은 1962년 Kempe, Silverman, Steele, Droegemueller와 Silver가 양육자나 부모에 의해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임상적 상태로 정의한 ‘피학대 아동 증후군(Battered-Child Syndr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널리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신체적 학대로부터 점차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이나 행동으로 확장되었다(권지은, 황순택, 이승복, 2012). 복합적이거나 만성적인 대인 간 외상은 복합외상(complex trauma), Type-II 외상(Terr, 1991), 발달적인 외상(Van der Kolk, 2005), 애착 외상(Allen, 2005)과 같이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안현의, 2007).

이러한 아동기 외상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인지, 정서,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아동기 외상은 적응능력을 저하시키고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우울과도 관련이 있다(양혜원, 2001 : 이유경, 2006 : 전명희, 양혜원, 2001 : 배미향 2014 : 김은정, 2009). Allen(2001)은 애착외상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아동기의 외상은 인위적이고 반복적이며 다양한 곳에서 경험하고, 가학적이거나 악의적이며 양육자에 의해 당한 외상이기 때문에 아동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기간과 증상이 길어져 만성이 된다면 전체 기억에 대해서 해리 방어가 나타나거나 신체화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Solomon과 Siegel(2003)은 외상사건을 경험할 경우 사람들은 공포와 위협을 느끼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대응능력을 잃게 되고, 자아개념 또한 변한다고 주장하였다. 외상 사건에 대처할 자원이 많고 효율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외상 후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아동은 이런 점에서 성인보다 취약할 수 있으며, 아동은 성인과 인지적, 정서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인과 다른 반응과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장정수, 2007).

아동 초기에 경험한 정신적 외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야기하여 마비(numb)나 말을 하지 않는(mute)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어린 아동일수록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 및 이성 관계의 어려움, 다양한 성적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오랜 외상경험의 반복은 아동이 내적인 안정감을 키우지 못하고 위로와 위안을 찾기 위해 외적인 자원에 의존하는 면이 커지게 된다. 결국, 만성적인 아동기 외상경험은 성격의 구조를 파편화시키고 정서나 기억, 신체 경험의 건강한 통합을 방해하게 된다.(조현희, 2013)

정리해보면, 아동기 복합외상은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등 대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한 경험을 의미한다. 이런 경험은 성장과정에 있어 인지, 정서, 행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란 여러 외상의 유형 중, 반복적으로 행해지면서 대인적인 폭력의 성격을 띤 외상을 말한다. 복합외상(Complex Trauma)이란 “반복적(Repeated)으로 지속(Prolonged)되면서 대인적(Interpersonal)의 폭력의 성격을 띤 외상 경험”을 말한다. 그 예로는 성적, 정서적, 신체적 아동학대, 가정 폭력피해, 포로 경험, 난민 경험, 성매매나 인신매매, 죽음이나 폭력을 목격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특히 복합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동기의 양육자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나 방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van der Kolk, 2005). 복합 외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외상은 아동 학대이지만 그 개념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복합 외상까지 포함한다. 그 이유는 복합 외상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은 종종 전 생애를 걸쳐 문제들(정신병, 중독, 성격 장애 등)이 나타나고, 이러한 문제는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기에 걸쳐 성인기까지 확대된다(van der Kolk, 2005)고 하였다.

이처럼 아동, 청소년기의 복합 외상 중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경험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성인기의 부적응과도 크게 관련이 있다(고나래, 2008). 즉, 아동기 신체적 학대는 성인기의 자기 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Lopez & Heffer, 1998), 낮은 학업성취도, 수면장애, 약물중독, 자살 충동, 공격적인 대인관계(Briere & Runtz, 1990) 등과 같은 행동적인 문제의 위험요인이 된다. 복합외상은 단순외상과 달리,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등 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광범위한 외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합외상은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치료 접근 및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복합 외상이 다른 외상과는 다른 접근과 진단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Herman(1992)에 이어 Pelcoviz, van der Kolk(1997)은 새로운 진단을 제시하였다. 그 명칭은 복합 PTSD 또는 DSM-IV에서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극단적인 스트레스 장애(Disorder of Extreme Stress Not Otherwise Specified : DESNOS)라고 부르며 그 진단 내용은 다음과 같이 6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표 1〉 달리 분류되지 않는 극단적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DESNOS)의 진단 기준

1. 정서적 각성 조절 기능의 변화
(A와 B-F 중 1개가 요구됨)
 - A. 정서조절 기능의 어려움
 - B. 분노 조절의 어려움
 - C. 자기 파괴적 행위
 - D. 자살 몰두
 - F.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
2. 주의력과 의식 기능의 변화
(A, B 중 1개가 요구됨)
 - A. 기억력 상실
 - B. 일시적인 해리와 이인화
3. 자기 인식의 변화
(A-F 중 2개가 요구됨)
 - A. 무력감
 - B. 자신의 영구적으로 손상된 느낌
 - C. 만성적인 죄책감과 책임감
 - D. 만성적인 수치심
 - E.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
 - F. 자기 경시
4. 타인과의 관계 변화
(A-C 중 1개가 요구됨)
 - A. 타인을 믿기 어려움
 - B. 반복해서 피해자가 될 가능성
 - C. 타인에게 가해 행위를 할 가능성
5. 신체화 증상
(A-E 중 2개가 요구됨)
 - A. 소화 체계
 - B. 만성적 고통
 - C. 심장과 폐의 증상
 - D. 전환 증상
 - E. 성적 증상
6. 의미체계의 변화
(A, B 중 1개가 요구됨)
 - A. 절망과 무망감
 - B. 이전에 갖고 있던 신념의 상실

(안현의, 2007 재인용)

이러한 복합외상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동·청소년 외상의 특징임을 밝힌 Terr(1991)의 연구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Terr(1991)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외상사건을 성인보다 반복적으로 영상화하고 행동화 및 신체화 반응, 삶과 미래에 대해 변화된 행동을 보인다. 외상 경험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러한 특성들은 청소년의 성숙과 발달을 어렵게 만든다. 그에 따르면 특히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기타 만성적 정신질환과 관련성이 높다.

정리해보면 하위 6가지 증상 중 1개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도 심리적 후유증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주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상의 이해와 치료를 위해서는 각 하위 증상과 이로 인하여 개인의 성격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관련한 이해가 필요하다.

3) 대인관계문제

Heider는 대인관계란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뜻하며, 개인이 타인을 어떻게 느끼고, 자각(perceive)하고,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며 타인이 스스로 무슨 생각이나 행위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인 양식이라고 하였다(장현숙, 2005). Sullivan(1953)은 대인관계란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이를 통해 개인의 안정과 만족이 충족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타인을 떠나서 생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인관계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면 첫째, 상징적 상호작용주의(symbolic interactionism) 학파인 Mead는 인간의 행동이 반성적 사고를 통해 자기가 자신을 보는 국면, 일반화된 타인들과의 상징(언어의 구사)을 통한 상호작용이 대인관계의 기본적 형성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Lewin, Heider, Kelley 등으로 대표되는 행태주의적 입장에서 형평이론(balance theory)을 제시한 Heider(1964)는 대인관계란 두 사람 사이의 대면관계와 세 사람 간의 삼자관계에서 형평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대부분 타인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A.W Combs, D Snygg, A.H Maslow, C.R Rogers 등으로 대표되는 인본주의자들은 대인관계가 개인의 적응과 성장 또는 자아실현에 결부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자아개념을 중시하여 자신을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이며 믿을 만한 존재로 파악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러한 견해를 가질 때 대인관계가 고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Karen Horney, Erich Fromm, Erik Erickson, H.S. Sullivan 등의 신프로드 학파(Neo-Freudian)는 사회·문화적 요인, 특히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대표하는 Sullivan은 인간의 행동 자체를 대인관계로 파악하여 개인이 하는 일과 생각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평가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정도 대인관계의 긴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 Sullivan은 관계 행동의 차원을 지배-복종(수직적 차원), 중요-친밀(수평적 차원)의 관계로 이원화하였고, 이 후 Leary는 Sullivan의 이론을 발전시켜 불안감소가 행동의 동기적 원리라는 대인관계모형을 제시하였다(손병환, 이선영, 2000 재인용). 또한 대인관계를 잘 해나가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특성과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반응을 나타내고, 속해진 집단과 조직 안에서 협동을 형성해내고 건강한 의사소통을 통해 조율과 협상을 잘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김민진, 2010). 이렇게 인간에게 중요한 대인관계는 청소년 시기에 더욱 중요해진다. 청소년 시기의 대인관계는 대부분 가족, 또래, 이성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은 자아정체감을 형성되고 자아존중감과 자아상이 발달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적절한 대인관계는 건강하고 성숙한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중요 요인이다.(김영미, 2009) 채유경(2005)은 청소년기란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로 발달과업에 의하면 건강한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다.

정리해 보면, 청소년기에는 생리적, 심리적인 변화가 크고 죄의식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를 할 대상이 있으면 청소년의 성격이 올바른 발달을 하게 된다. 즉,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서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까운 타인과 지속적이고 잦은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resilience)이라는 용어는 Garmazy(1980)와 Rutter(1985)가 열악한 환경과 스트레스 조건에서도 잘 기능할 뿐더러 스트레스에 저항적인 어린이들을 특징지을 때 처음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의 사전적 의미는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 ‘회복력’, ‘탄성’으로서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 기능 수행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즉 스트레스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의 복귀 능력이다.

Block & Block(1980)의 종단적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은 첫째,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융통성이 있고 통합된 수행(스트레스 대처능력, 다양한 문제해결 책략 소유), 둘째, 성격 안정성(덜 불안해 함, 덜 의심함), 셋째, 자신감(자기확신, 자기수용), 넷째, 학교와 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융통성 있는 적응(창조성, 새로움 추구), 다섯째, 또래 관계(정서표현의 적절성, 공감), 여섯째, 인지능력(유능성, 유창성, 영리함) 등이다.

Block & Kremen(1996)은 자아탄력성을 환경, 인내수준, 충동통제 조절능력으로 보고 그 구성요소를 감정통제, 낙관성, 대인관계, 호기심, 활력성의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강명희, 2013 재인용)

<표 2>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하위요인	내 용
감정통제	화가 나면 욕을 하고, 다른 사람과의 다툼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거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생각해봄. 또한 화가 나도 외적으로 표현하지 않거나 기분이 나쁜 경우에도 마음의 안정을 바로 찾음.
낙관성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 노력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일이 잘못되어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함.
대인관계	타인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타인의 일에 대해 공감하며, 잘못된 경우 먼저 사과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의 즐김.
호기심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과 만나도 쉽게 친해지고, 낯선 길도 혼자 잘 다니며, 궁금한 것에 대해 이해하려 노력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 직접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봄.
활력성	주로 즐거울 때가 많으며, 타인에게 상냥하고, 일에 있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진행함.

(Block & Kremen, 1996, 강명희, 2013 재인용)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며, 과제 해결을 위해 충동을 조절하는 행동적인 특징을 보인다(Funder, Block & Block, 1989).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융통성이 없어 상황의 역동적인 요구에 반응하지 못한다. 그들은 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쉽게 좌절하고, 외상을 경험한 후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인다(Block & Gjerde, 1990). 자아탄력성을 가진 아동들의 특징으로는 자기 효능감과 자기존중감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에 대해 명확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외향적이며 성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진오, 2008, 재인용).

정리해보면, 자아탄력성은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며, 아동의 타고난 특성은 환경적인 질과 독특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Horowitz의 발달 모델에 의하면(박성연, 도현심, 1999)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그 시점까지 이루어온 발달 수준과 현재의 여러 가지 환경적 상황에 따라 그에 적합하게 작동되어 나타나므로, 개인의 자아탄력성 발달은 타고난 특성과 환경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복합외상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12일~10월 26일까지 15일 동안 실시하였다. 각 기관의 담당자에게 설문지에 대한 안내사항에 대해 구두 및 자료로 안내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2,000부 중 회수한 1,52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tic Questionnaire : CTQ)

아동기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이 제작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tic Questionnaire CTQ)를 이유경(2006)이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의 5가지 하위 요인을 각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전혀 없었다.’ 0점, ‘드물게 있었다.’ 1점, ‘가끔 있었다.’ 2점, ‘자주 있었다.’ 3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며,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7번 문항은 역 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경험이 많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각 하위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는 ‘가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신체적 학대는 ‘세계 맞아 멍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등의 내용을, 정서적 방임은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역 채점 문항), 신체적 방임은 ‘내가 찢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어도 내버려 둔 적이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성적 학대는 ‘강제로 신체(손, 엉덩이, 가슴, 성기 등)를 접촉한 적이 있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3〉 아동기 외상 질문지 하위척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정서적 학대	5	16, 17, 18, 19, 20
신체적 학대	5	21, 22, 23, 24, 25
정서적 방임	5	26, 27, 28, 29, 30
신체적 방임	5	31, 32, 33, 34, 35
성적 학대	5	36, 37, 38, 39, 40

2) 아동용 외상 후 증상보고(Korean Version of the child Report of Post-traumatic Symptoms, CROPS)

CROPS는 6세에서 18세까지 아동에서 외상 후 증상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Greenwald와 Rubin에 의해 개발된 평가도구이다. CROPS는 아동 스스로가 작성하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이며 최근 일주일간의 증상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 척도는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에 국한되어 있다기보다는 밝혀진 외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넓은 의미의 외상 후 증상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CROPS는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이 아동의 증상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아님 혹은 거의 아님’은 0, ‘어느 정도 혹은 때때로 맞음’은 1, ‘정말 맞음 혹은 자주 맞음’은 2으로 평가하여 전체 문항의 총점을 구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외상 후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자는 CROPS의 경우 19점을 임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절단점(Cut-off)이라고 시험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의 개발자로부터 한국어판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며, 한국어판 척도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번역가에 의해 만들어졌다.

3)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Pelcoviz, van der Kolk, Roth Mandel Kaplan과 Resick가 개발한 “극단적 스트레스 장애를 위한 구조화된 면접(SIDES)”을 Spinazzola와 Blaustein, Van der Kolk(2001)이 자기보고식 척도(SIDES-SR)로 개발하였고 이를 정지선과 안현희(2008)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의 하위 준거인 정서 및 충동조절 기능의 변화, 주의력과 의식기능의 변화, 자기 인식의 변화, 대인관계에서의 변화, 신체화 증상, 의미체계의 변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개 요인의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증상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의 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평정하는 강도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에서 3점 이상일 경우 해당 문항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복합 외상의 연구 초기에서는 총 7개 진단 준거 중 4개 준거 이상 해당할 경우 복합 PTSD로 진단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았다(Ouimtee, Saxe & Van der Kolk, 1996). 그러나 초기 복합 PTSD 진단 기준에 포함되었던 ‘가해자에 대한 시각에서의 변화’가 현재 복합 PTSD 진단의 필수적 측면으로 고려되지 않고 제외되어(Luxenberg Spinnazzola, & Van der Kolk, 2001), 총 6개의 진단 준거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복합 PTSD로 진단하였다.

〈표 4〉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질문지 하위척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정서 및 충동조절 기능의 변화	19	99~117(107제외), 128, 139
주의력과 의식 기능의 변화	5	107, 118~120, 127
자기 인식의 변화	6	121~124, 140, 141
대인관계에서의 변화	5	129~133
신체화 증상	5	134~138
의미체계의 변화	5	125, 126, 141~143

4) 대인관계문제 척도(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 KIIP-SC)

이 척도는 Horowitz 등(1998)이 개발하고 Alden, Wiggins와 Pincus(1990)가 64문항으로 재구성한 검사이다. 이를 김영환 등(200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된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검사(K-IIP)의 단축형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표 5〉 대인관계문제 질문지 하위척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자기중심성	4	86, 87, 90, 93
냉담	5	82, 88, 89, 95, 98
사회적 억제	3	84, 92, 97
비주장성	5	81, 83, 85, 91, 96
과순응성	1	94

5)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O'connell-Higgins(1983)이 자아탄력적인 아동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연구한 것과 Block과 Kremen(1996) 자아탄력성 척도를 가지고 박은희(1997)가 변안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등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수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 자아탄력성 질문지 하위척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대인관계	3	67, 70, 75
활력성	2	68, 72
감정통제	2	76, 79
호기심	5	69, 71, 73, 74, 77
낙관성	2	78, 80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소재한 15개 도,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꿈드림, 15개 시·군 중·고등학교 등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탄력성이 갖는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연구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교육 관련 특성, 지원체계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교육관련 특성, 지원체계 특성에 따라 복합외상경험,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주요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통계패키지 SPSS 21.0을 사용하였다. 일반현황 파악을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F-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Ⅲ.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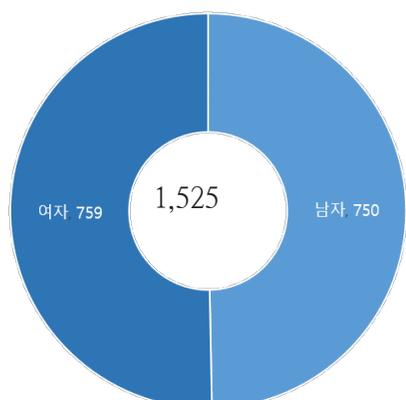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성별 및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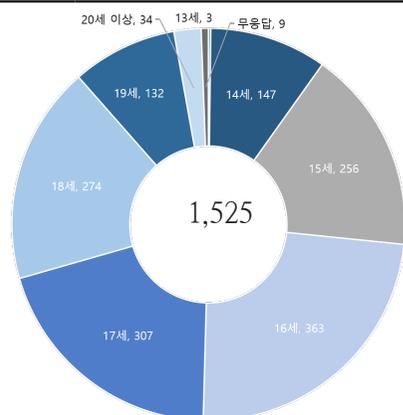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및 연력을 살펴본 결과 <표 7>와 같다. 조사대상자 중 남자는 750명(49.2%), 여자는 759명(49.8%)로 성비가 유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6세가 363명(23.8%)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 17세가 307명(20.1%), 18세가 274명(18.0%), 15세가 256명(16.8%), 14세가 147명(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6세에서 18세까지 61.9% 비율로 가장 많이 분포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별·연령 분포

특성	범주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750	49.2%
	여자	759	49.8%
	무응답	16	1%
합계		1,525	100%
연령	13세	3	.2%
	14세	147	9.6%
	15세	256	16.8%
	16세	363	23.8%
	17세	307	20.1%
	18세	274	18%
	19세	132	8.7%
	20세 이상	34	2.2%
	무응답	9	.6%
합계		1,525	100%



<그림 1-1>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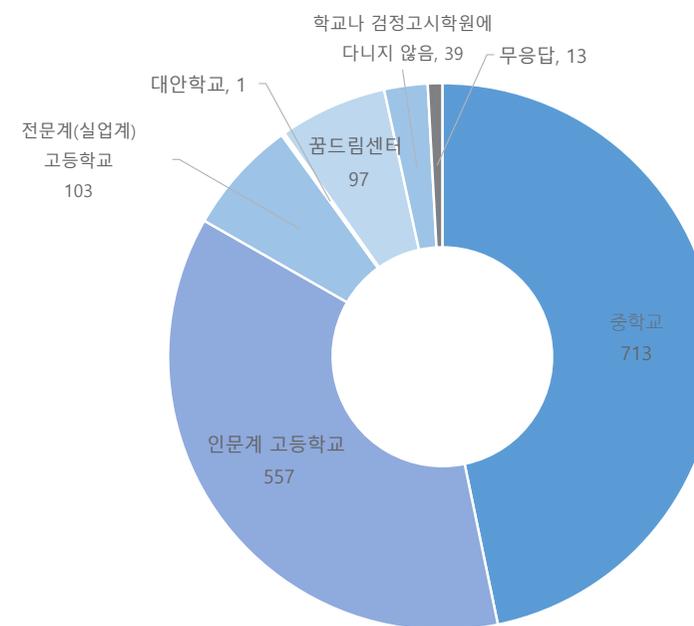
<그림 1-2> 연령 분포

2) 소속기관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소속기관을 살펴본 결과 <표 8>와 같다. 조사대상자 중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외에 대안학교, 검정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꿈드림센터 등을 포함하여 조사한 결과, 중학교 713명(46.8%), 인문계 고등학교가 557명(36.5%),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가 103명(6.8%) 순이었으며, 기타사항으로는 꿈드림센터,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소속기관 분포

특성	범주	빈도	퍼센트
소속기관	중학교	713	46.8%
	인문계 고등학교	557	36.5%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3	6.8%
	대안학교	1	.1%
	검정고시학원	1	.1%
	직업훈련기관	1	.1%
	꿈드림센터	97	6.4%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2.6%
	무응답	13	.9%
합계		1,52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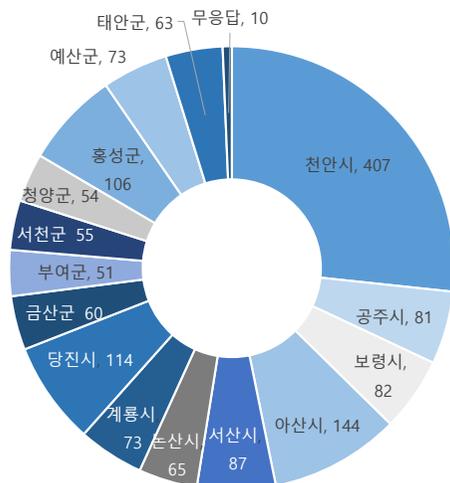
<그림 2> 소속기관 분포

3) 지역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소속기관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충남 15개 시·군 지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천안(26.7%), 아산(9.4%), 당진(7.5%), 홍성(7%) 서산(5.7%), 보령(5.4%), 공주(5.3%), 계룡(4.8%), 예산(4.8%), 논산(4.3%), 태안(4.1%), 금산(3.9%), 서천(3.6%), 청양(3.5%), 부여(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지역 분포

특성	범주	빈도	퍼센트
지역	천안시	407	26.7%
	공주시	81	5.3%
	보령시	82	5.4%
	아산시	144	9.4%
	서산시	87	5.7%
	논산시	65	4.3%
	계룡시	73	4.8%
	당진시	114	7.5%
	금산군	60	3.9%
	부여군	51	3.3%
	서천군	55	3.6%
	청양군	54	3.5%
	홍성군	106	7%
	예산군	73	4.8%
	태안군	63	4.1%
무응답	10	.7%	
합계		1,52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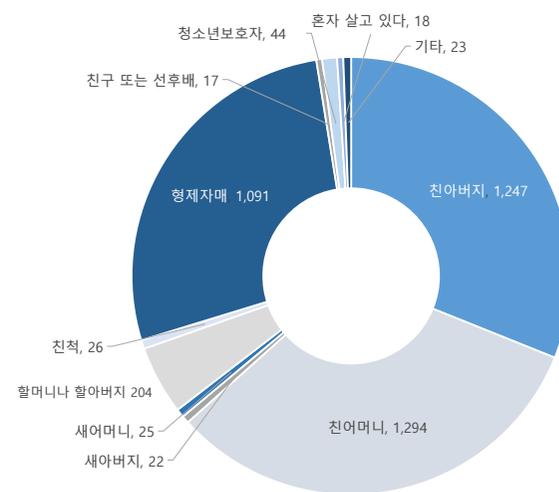
<그림 3> 지역 분포

4) 가족형태

조사대상자들의 가족형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10>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가족형태 중 친아버지, 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이 1,247명(31.1%), 1,294명(32.3%)으로 나타났다. 다중응답임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친아버지, 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형제자매 1,091명(27.2%), 할머니나 할아버지 204명(5.1%)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새어머니, 새아버지, 친척, 친구 또는 선후배, 혼자살고 있다, 청소년보호자(쉼터,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소년원 등),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가족형태 분포(다중응답)

가족형태	빈도	퍼센트
친아버지	1,247	31.1%
친어머니	1,294	32.3%
새아버지	22	.5%
새어머니	25	.6%
할머니나 할아버지	204	5.1%
친척	26	.6%
형제자매	1,091	27.2%
친구 또는 선후배	17	.4%
청소년보호자(쉼터,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소년원 등)	44	1.1%
혼자 살고 있다	18	.4%
기타	23	.6%
합계	4,01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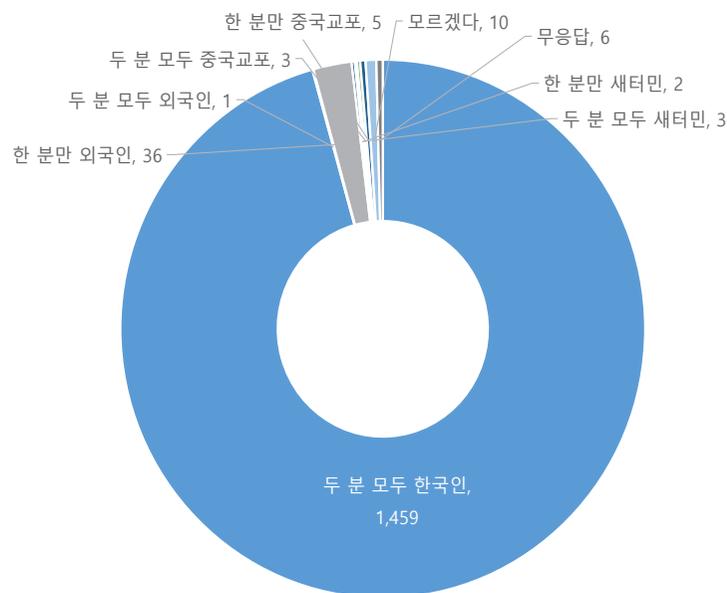
<그림 4> 가족형태 분포

5) 부모 출신국

조사대상자들의 가족형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11>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부모 출신국은 1,459명(95.7%)가 두 분 모두 한국인이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조사대상자의 부모는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분만 외국인 36명(2.4%)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새터민, 중국교포, 모르겠다, 무응답 순으로 분포 되어있다.

<표 11> 부모 출신국 분포

부모 출신국	빈도	퍼센트
두 분 모두 한국인	1,459	95.7%
두 분 모두 외국인	1	.1%
한 분만 외국인	36	2.4%
두 분 모두 새터민	3	.2%
한 분만 새터민	2	.1%
두 분 모두 중국교포	3	.2%
한 분만 중국교포	5	.3%
모르겠다	10	.7%
무응답	6	.4%
합계	1,52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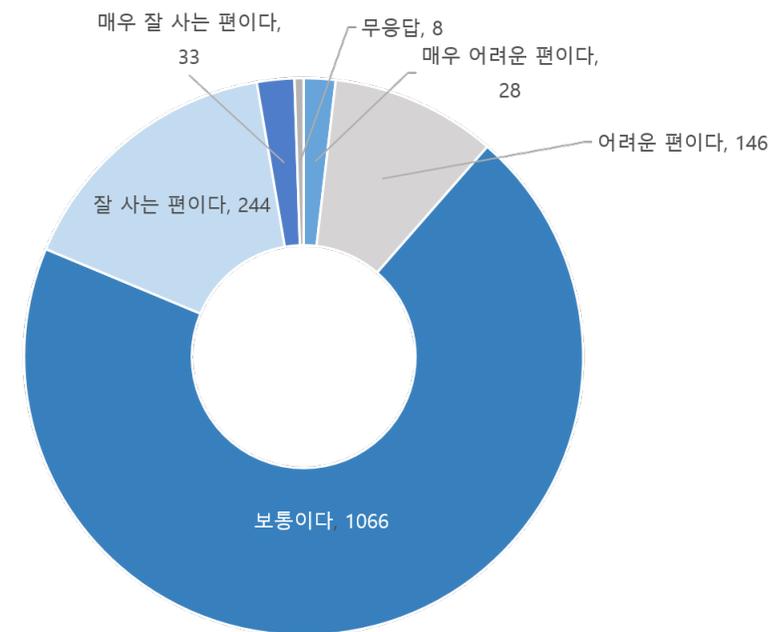
<그림 5> 부모 출신국 분포

6) 가정경제수준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주관적 경제상태의 특징은 <표 12>와 같다. 경제수준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1,066명(69.9%)로 가장 많았고, '잘 사는 편이다' 244명(16%), '어려운 편이다' 146명(9.6%), '매우 잘사는 편이다' 33명(2.2%),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명(1.8%)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보통'이라는 통계가 과반수 이상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2> 가정경제수준 분포

경제수준	빈도	퍼센트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1.8%
어려운 편이다	146	9.6%
보통이다	1066	69.9%
잘 사는 편이다	244	16%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2.2%
무응답	8	.5%
합계	1,52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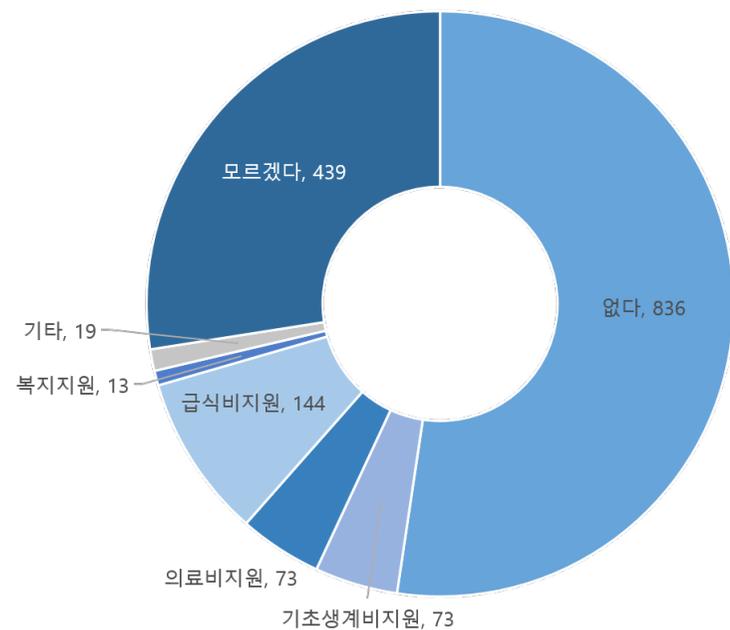
<그림 6> 가정경제수준 분포

7) 국가 및 단체의 경제적 지원

연구대상 청소년이 국가 또는 외부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특성은 <표 13>에 정리된 바와 같다. 먼저 국가나 단체에 의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없다는 응답이 836명(52.3%)로 가장 많았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439명(27.5%), 국가나 단체에 의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급식비 지원이 144명(9%)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계비지원과 의료비지원이 모두 73명(4.6%)로 나타났다.

<표 13> 국가나 단체에 의한 경제적 지원 분포(다중응답)

국가나 단체에 의한 경제적 지원	빈도	퍼센트
없다	836	52.3%
기초생계비지원	73	4.6%
의료비지원	73	4.6%
급식비지원	144	9%
긴급복지지원 (가장의 사망, 질병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원받는 경우)	13	0.8%
기타	19	1.2%
모르겠다	439	27.5%
합계	1,59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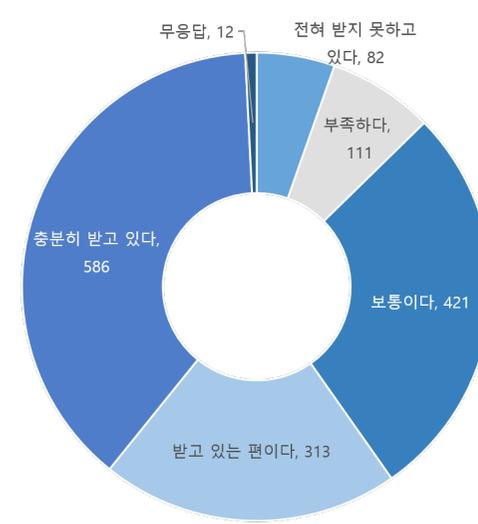
<그림 7> 국가나 단체에 의한 경제적 지원 분포(다중응답)

8) 부모의 물질적·정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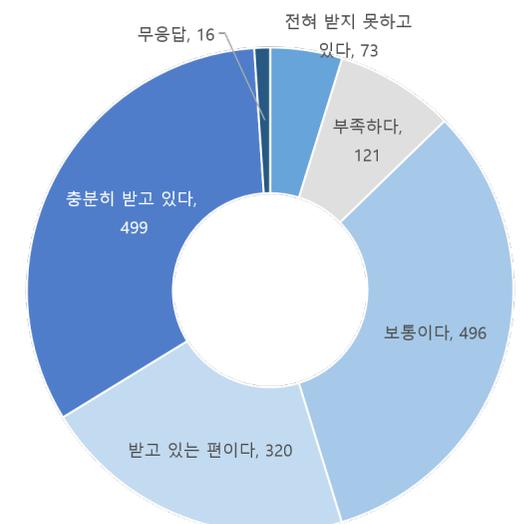
조사대상자들의 부모의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살펴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부모로부터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물질적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고 있다는 응답이 586명(38.4%), 보통이라는 응답이 421명(27.6%), 받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313명(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고 있다는 응답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각각 499명(32.7%)와 496명(32.5%)로 유사하였고, 받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320명(21.0%)로 나타나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부모로부터 물질적·정서적 지원은 보통수준 이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부모의 물질적·정서적 지원 분포

내용	범주	빈도	퍼센트
물질적 지원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2	5.4%
	부족하다	111	7.3%
	보통이다	421	27.6%
	받고 있는 편이다	313	20.5%
	충분히 받고 있다	586	38.4%
	무응답	12	.8%
정서적 지원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3	4.8%
	부족하다	121	7.9%
	보통이다	496	32.5%
	받고 있는 편이다	320	21%
	충분히 받고 있다	499	32.7%
	무응답	16	1.0%
합계		1,525	100.0%



<그림 8-1> 부모의 물질적 지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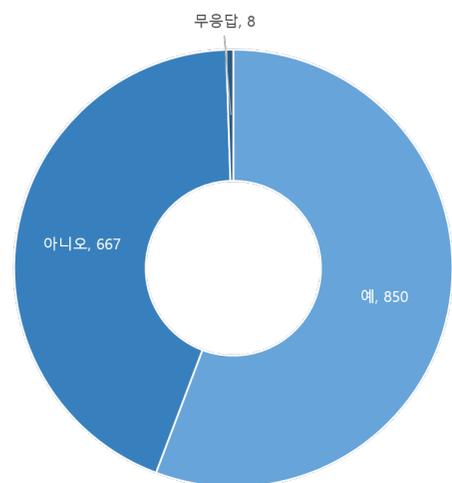
<그림 8-2> 부모의 정서적 지원 분포

9) 청소년전화 1388 인지·이용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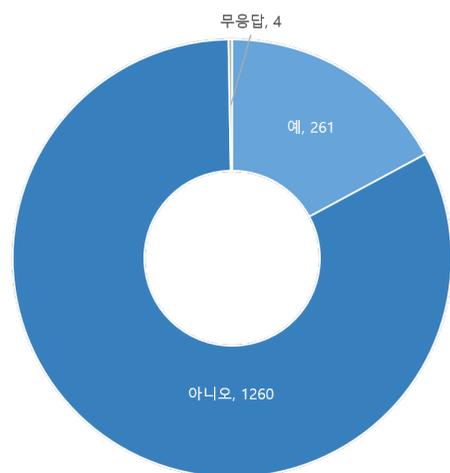
조사대상자들의 청소년전화 1388 인지·이용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을 알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55.7%이며, 모르고 있는 청소년은 43.7%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용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5.7%에 불과하였다.

<표 15> 청소년 전화 1388 인지 및 이용여부

내용	범주	빈도	퍼센트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인지여부	예	850	55.7%
	아니오	667	43.7%
	무응답	8	0.5%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이용여부	예	87	5.7%
	아니오	1431	93.8%
	무응답	7	0.5%
합계		1,525	100.0%



<그림 9-1>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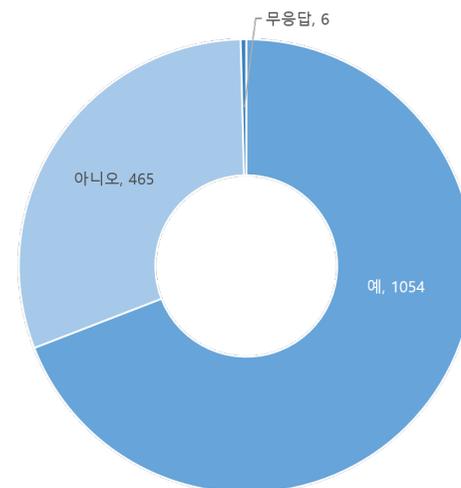
<그림 9-2>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이용여부

1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이용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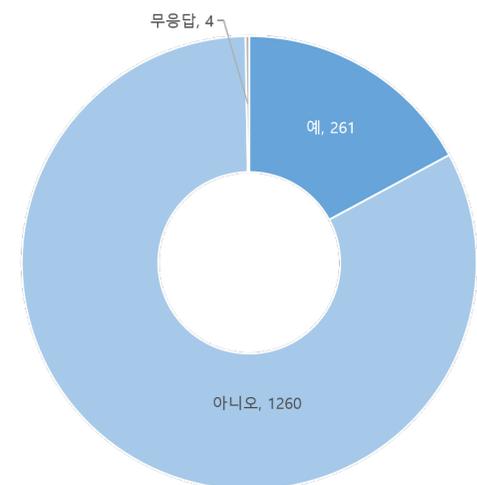
조사대상자들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이용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16>와 같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69.1% 과반수 이상이 알고 있으며, 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17.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 및 이용여부

내용	범주	빈도	퍼센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여부	예	1054	69.1%
	아니오	465	30.5%
	무응답	6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여부	예	261	17.1%
	아니오	1260	82.6%
	무응답	4	.3%
합계		1,525	100.0%



<그림 10-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여부



<그림 10-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여부

2.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1)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의 전반적인 특성

조사대상 청소년이 경험한 복합외상경험의 전체적인 특성과 각 하위 요인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표 17>와 같다. 먼저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 순으로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았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최소 0점에서 최대 3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47(SD=.56)의 수준으로 보였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최소 0점에서 최대 3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25(SD=.46)의 수준으로 보였다. 정서적 방임의 경우 최소 0점에서 최대 3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80(SD=.87)의 수준으로 보였다. 신체적 방임의 경우 최소 0점에서 최대 3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78(SD=.40)의 수준으로 보였다. 성적학대의 경우 최소 0점에서 최대 3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05(SD=.25)의 수준으로 보였다. 요약하자면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방임 평균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와 있으며,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순으로 나타나 있다.

<표 17>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특성

하위 요인	평균	표준편차
정서적 학대	0.47	0.56
신체적 학대	0.25	0.46
정서적 방임	0.80	0.87
신체적 방임	0.78	0.40
성적 학대	0.05	0.25
전체	0.46	0.34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1) 성별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청소년이 경험한 전체적인 복합외상경험과 하위 요인별 복합외상경험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18>와 같다. 전체적인 복합외상경험에 있어서 남자는 평균 .47(SD.35), 여자는 평균 .46(SD.33)로 나타났으며,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학대경험, 정서적 방임경험, 성적학대경험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18> 성별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 경험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정서적 학대	남자	740	0.41	0.53	-3.766	.000
	여자	752	0.52	0.59	-3.766	.000
신체적 학대	남자	744	0.25	0.48	.689	.491
	여자	752	0.24	0.45	.689	.491
정서적 방임	남자	745	0.84	0.89	2.003	.045
	여자	748	0.75	0.85	2.003	.045
신체적 방임	남자	741	0.78	0.42	.378	.705
	여자	750	0.78	0.37	.378	.705
성적 학대	남자	744	0.06	0.32	2.848	.004
	여자	751	0.03	0.15	2.848	.004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전체	남자	718	0.47	0.35	.658	.510
	여자	720	0.46	0.33		

(2) 소속기관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청소년이 경험한 전체적인 복합외상경험과 하위 요인별 복합외상경험의 소속기관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19>와 같다. 전체적인 복합외상경험에 있어서 중학생 평균.42(SD.31), 인문계 고등학생 평균.43(SD.29), 전문(실업)계 고등학교 평균.59(SD.49), 꿈드림센터 평균 .70(SD.49),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 않음 평균0.82(SD.52)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속기관의 범주 중 대안학교, 검정고시학원,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 소년원학교에 속한 응답자는 없거나 한 명 뿐이어서, 위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학대경험, 신체적 학대경험, 정서적 방임경험, 성적 학대경험과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전체는 소속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19> 소속기관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소속기관	N	평균	표준편차	F	p
정서적 학대	중학교	704	0.45	0.53	11.525	.000
	인문계 고등학교	553	0.41	0.51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99	0.53	0.58		
	꿈드림센터	95	0.72	0.73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0.84	0.84		
신체적 학대	중학교	706	0.22	0.41	14.702	.000
	인문계 고등학교	554	0.20	0.38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1	0.35	0.65		
	꿈드림센터	96	0.49	0.73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0.53	0.67		
정서적 방임	중학교	701	0.65	0.79	38.255	.000
	인문계 고등학교	555	0.74	0.80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2	1.27	1.10		
	꿈드림센터	97	1.22	0.92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1.91	1.02		
신체적 방임	중학교	702	0.78	0.37	2.064	.083
	인문계 고등학교	553	0.77	0.37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2	0.74	0.44		
	꿈드림센터	95	0.89	0.58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0.77	0.53		
성적 학대	중학교	708	0.03	0.20	4.316	.002
	인문계 고등학교	551	0.04	0.23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2	0.06	0.22		
	꿈드림센터	96	0.14	0.51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0.08	0.21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전체	중학교	674	0.42	0.31	30.869	.000
	인문계고등학교	539	0.43	0.29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94	0.59	0.42		
	꿈드림센터	91	0.70	0.49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0.82	0.52		

(3)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청소년이 경험한 전체적인 복합외상경험과 하위 요인별 복합외상경험의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0>와 같다. 전체적인 복합외상경험에 있어서 친부모 평균.41(SD.28), 조부모 및 친척가정 평균.48(SD.32) 친구, 센터, 독거 평균.84(SD.54), 새부모가정 평균 .52(SD.34)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친부모 가정’, 할머니나 할아버지, 친척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조부모 및 친척 가정’, 친구 또는 선후배, 청소년보호자, 혼자살고 있다와 기타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친구, 센터, 독거’, 새아버지와 새어머니라고 응한 응답자는 ‘새부모 가정’으로 새롭게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요약하자면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의 모든 하위요인과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전체는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20>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가족형태	N	평균	표준편차	F	p
정서적 학대	친부모 가정	1004	0.40	0.51	12.859	.000
	조부모 및 친척 가정	202	0.49	0.52		
	친구,센터,독거	74	0.79	0.81		
	새부모 가정	45	0.46	0.55		
신체적 학대	친부모 가정	1009	0.19	0.37	31.211	.000
	조부모 및 친척 가정	202	0.21	0.39		
	친구,센터,독거	74	0.68	0.90		
	새부모 가정	45	0.31	0.48		
정서적 방임	친부모가정	1010	0.67	0.79	37.671	.000
	조부모 및 친척 가정	200	0.89	0.91		
	친구,센터,독거	75	1.66	0.99		
	새부모 가정	43	1.05	0.96		
신체적 방임	친부모 가정	1004	0.75	0.35	5.494	.001
	조부모 및 친척 가정	202	0.77	0.42		
	친구,센터,독거	75	0.93	0.60		
	새부모 가정	45	0.80	0.48		
성적 학대	친부모 가정	1012	0.03	0.21	3.571	.014
	조부모 및 친척 가정	201	0.04	0.25		
	친구,센터,독거	74	0.12	0.33		
	새부모 가정	44	0.06	0.26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전체	친부모 가정	969	0.41	0.28	45.576	.000
	조부모 및 친척 가정	195	0.48	0.32		
	친구,센터,독거	72	0.84	0.54		
	새부모 가정	43	0.52	0.34		

(4)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조사 대상의 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전체 복합외상경험과 하위요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21>와 같다. 경제적 수준은 매우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보통, 잘 사는 편, 매우 잘 사는 편으로 구분하여 차이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복합외상경험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편 평균1.04(SD.52), 어려운 편 평균.73(SD.46) 보통 평균.43(SD.29), 잘 사는 편 평균 .41(SD.31), 매우 잘 사는 편 평균.42(SD.36)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의 모든 하위요인과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전체는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21>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가정경제수준	N	평균	표준편차	F	p
정서적 학대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1.25	0.84	32.124	.000
	어려운 편이다	141	0.80	0.73		
	보통이다	1054	0.42	0.51		
	잘 사는 편이다	242	0.40	0.52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0.27	0.50		
신체적 학대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0.74	0.86	24.269	.000
	어려운 편이다	145	0.51	0.74		
	보통이다	1056	0.20	0.37		
	잘 사는 편이다	242	0.23	0.44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0.24	0.53		
정서적 방임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1.84	1.01	27.086	.000
	어려운 편이다	145	1.27	0.93		
	보통이다	1056	0.75	0.85		
	잘 사는 편이다	240	0.58	0.71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0.82	1.13		
신체적 방임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1.15	0.66	11.988	.000
	어려운 편이다	144	0.90	0.55		
	보통이다	1052	0.75	0.36		
	잘 사는 편이다	242	0.80	0.35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0.74	0.53		
성적 학대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0.22	0.46	9.427	.000
	어려운 편이다	145	0.13	0.48		
	보통이다	1057	0.03	0.19		
	잘 사는 편이다	241	0.03	0.23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0.03	0.14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전체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1.04	0.52	50.312	.000
	어려운 편이다	136	0.73	0.46		
	보통이다	1017	0.43	0.29		
	잘 사는 편이다	231	0.41	0.31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0.42	0.36		

3) 지원체계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1)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조사 대상의 청소년이 인지하는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른 전체 복합외상경험과 하위요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22>와 같다. 국가나 외부지원의 하위범주 중에는 응답자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가나 외부지원이 ‘없음’과 ‘있음’ 범주로 새롭게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학대경험, 신체적 학대경험, 정서적 방임경험, 신체적 방임경험과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전체는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22>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국가나 외부지원	N	평균	표준편차	t	p
정서적 학대	없음	824	0.43	0.56	-4.285	.000
	있음	238	0.61	0.63		
신체적 학대	없음	824	0.24	0.46	-2.708	.007
	있음	240	0.34	0.58		
정서적 방임	없음	826	0.73	0.84	-3.657	.000
	있음	240	0.96	0.97		
신체적 방임	없음	821	0.76	0.40	-3.485	.001
	있음	240	0.86	0.46		
성적 학대	없음	827	0.05	0.28	-1.062	.288
	있음	239	0.07	0.27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전체	없음	798	0.44	0.34	-4.921	.000
	있음	231	0.57	0.42		

(2)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조사 대상의 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른 전체 복합외상경험과 하위요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23>와 같다. 전체적인 복합외상경험에 있어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평균 .84(SD.55), 부족하다 평균 .74(SD.40) 보통이다 평균 .46(SD.29), 받고 있는 편이다 .평균 .45(SD.32), 충분히 받고 있다 평균.37(SD.27)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의 모든 하위요인과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전체는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23>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가족의 물질적 지원	N	평균	표준편차	F	p
정서적 학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7	0.85	0.88	29.221	.000
	부족하다	109	0.86	0.65		
	보통이다	419	0.42	0.49		
	받고 있는 편이다	308	0.46	0.55		
	충분히 받고 있다	581	0.38	0.49		
신체적 학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1	0.64	0.80	26.656	.000
	부족하다	111	0.46	0.61		
	보통이다	419	0.20	0.38		
	받고 있는 편이다	305	0.24	0.47		
	충분히 받고 있다	584	0.18	0.35		
정서적 방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1	1.68	1.05	54.314	.000
	부족하다	111	1.37	0.93		
	보통이다	416	0.87	0.86		
	받고 있는 편이다	309	0.76	0.82		
	충분히 받고 있다	581	0.52	0.72		
신체적 방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1	0.88	0.59	5.475	.000
	부족하다	110	0.91	0.54		
	보통이다	417	0.75	0.38		
	받고 있는 편이다	309	0.77	0.40		
	충분히 받고 있다	578	0.76	0.33		
성적 학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0	0.15	0.44	7.694	.000
	부족하다	111	0.11	0.39		
	보통이다	418	0.05	0.24		
	받고 있는 편이다	310	0.03	0.22		
	충분히 받고 있다	581	0.02	0.16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전체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6	0.84	0.55	59.751	.000
	부족하다	108	0.74	0.40		
	보통이다	405	0.46	0.29		
	받고 있는 편이다	290	0.45	0.32		
	충분히 받고 있다	562	0.37	0.27		

(3)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조사 대상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복합외상경험의 차이는 <표 24>에 제시되었다. 전체적인 복합외상경험에 있어서 전혀 받고 못하고 있다 평균 1.01(SD.51), 부족하다 평균.82(SD.39) 보통이다 평균.51(SD.31), 받고 있는 편이다 평균 .41(SD.25), 충분히 받고 있다 평균.29(SD.21)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정서적지원에 따른 전체 복합외상경험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표 24>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가족의 정서적 지원	N	평균	표준편차	F	p
정서적 학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1	1.12	0.86	71.605	.000
	부족하다	120	0.95	0.72		
	보통이다	489	0.49	0.54		
	받고 있는 편이다	316	0.41	0.47		
	충분히 받고 있다	494	0.28	0.39		
신체적 학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3	0.74	0.86	39.076	.000
	부족하다	115	0.47	0.63		
	보통이다	494	0.25	0.44		
	받고 있는 편이다	318	0.21	0.37		
	충분히 받고 있다	496	0.14	0.32		
정서적 방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2	1.89	0.99	173.750	.000
	부족하다	121	1.74	0.80		
	보통이다	490	1.05	0.84		
	받고 있는 편이다	315	0.58	0.63		
	충분히 받고 있다	496	0.30	0.58		
신체적 방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3	1.00	0.67	11.731	.000
	부족하다	121	0.87	0.56		
	보통이다	489	0.73	0.39		
	받고 있는 편이다	316	0.82	0.34		
	충분히 받고 있다	492	0.75	0.31		
성적 학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3	0.22	0.56	14.306	.000
	부족하다	121	0.11	0.38		
	보통이다	491	0.04	0.23		
	받고 있는 편이다	315	0.03	0.19		
	충분히 받고 있다	496	0.02	0.15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전체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0	1.01	0.51	154.707	.000
	부족하다	114	0.82	0.39		
	보통이다	473	0.51	0.31		
	받고 있는 편이다	301	0.41	0.25		
	충분히 받고 있다	479	0.29	0.21		

3.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1)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특성

조사대상 청소년이 경험한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의 전체적인 특성과 각 하위 요인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표 25>와 같다. 먼저 정서 및 충동조절기능 변화, 주의력과 의식기능 변화, 자기지각변화, 대인관계변화, 신체화 증상, 의미체계변화로 하위요인을 구별하였다. 정서 및 충동조절기능의 경우에는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47(SD=.44)의 수준으로 보였다. 주의력과 의식기능변화의 경우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65(SD=.62)의 수준으로 보였다. 자기지각변화의 경우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42(SD=.60)의 수준으로 보였다. 신체화 증상 경우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31(SD=.50)의 수준으로 보였다. 의미체계변화의 경우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39(SD=.51)의 수준으로 보였다. 요약하자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주의력과 의식기능변화 평균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와 있으며, 대인관계변화, 정서 및 충동조절기능변화, 자기지각변화, 의미체계변화, 신체화 증상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특성

하위 요인	평균	표준편차
정서 및 충동조절기능변화	0.47	0.44
주의력과 의식기능변화	0.65	0.62
자기지각변화	0.42	0.60
대인관계변화	0.49	0.63
신체화 증상	0.31	0.50
의미체계변화	0.39	0.51
전체	0.46	0.47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1) 성별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6>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복합외상경험 후 스트레스에 있어서 남자는 평균 .41(SD.46), 여자는 평균 .49(SD.47)로 나타났으며,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정서 및 충동조절 기능 변화, 주의력과 의식 기능 변화, 대인관계 변화, 신체화 증상, 의미 체계 변화와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전체점수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 < .01$). 요약하자면 각 영역의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성별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정서 및 충동조절기능변화	남자	749	0.43	0.47	-3.363	.001
	여자	759	0.51	0.42		
주의력과 의식기능변화	남자	750	0.57	0.59	-4.913	.000
	여자	759	0.72	0.63		
자기지각변화	남자	746	0.41	0.60	-.368	.713
	여자	758	0.43	0.59		
대인관계변화	남자	746	0.44	0.61	-2.956	.003
	여자	758	0.54	0.65		
신체화증상	남자	746	0.27	0.47	-3.171	.002
	여자	758	0.35	0.52		
의미체계변화	남자	746	0.35	0.49	-2.908	.004
	여자	758	0.42	0.52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전체	남자	745	0.41	0.46	-3.443	.001
	여자	758	0.49	0.47		

(2) 소속기관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있어서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7>에 제시하였다. 소속기관에 따른 복합외상경험 후 스트레스에 있어서 중학생은 평균 .44(SD.45), 인문계 고등학생은 평균 .43(SD.45), 전문계(실업계) 고등학생은 평균 .56(SD.57), 꿈드림센터 평균 .54(SD .49), 학교나 검정고시학원 다니지 않음 평균 .61(SD .50)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에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결과를 보면 학교나 검정고시학원 다니지 않음이 제일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위로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꿈드림센터,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자가지각 변화, 대인관계 변화, 신체화 증상, 의미체계 변화와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전체 점수는 소속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5).

<표 27> 소속기관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소속기관	N	평균	표준편차	F	p
정서 및 충동조절기능변화	중학교	712	0.50	0.45	2.361	.051
	인문계 고등학교	557	0.42	0.42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3	0.50	0.53		
	꿈드림센터	97	0.48	0.47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0.52	0.44		
주의력과 의식기능변화	중학교	713	0.65	0.63	1.009	.401
	인문계 고등학교	557	0.62	0.59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3	0.69	0.66		
	꿈드림센터	97	0.70	0.63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0.76	0.64		
자가지각변화	중학교	710	0.40	0.57	2.728	.028
	인문계 고등학교	555	0.40	0.59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3	0.55	0.70		
	꿈드림센터	97	0.50	0.64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0.58	0.59		
대인관계변화	중학교	710	0.44	0.61	6.314	.000
	인문계 고등학교	555	0.48	0.62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3	0.58	0.69		
	꿈드림센터	97	0.69	0.70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0.78	0.75		
신체화증상	중학교	710	0.28	0.48	6.334	.000
	인문계 고등학교	555	0.29	0.47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3	0.52	0.66		
	꿈드림센터	97	0.37	0.50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0.45	0.61		
의미체계변화	중학교	710	0.34	0.49	5.490	.000
	인문계 고등학교	555	0.39	0.49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3	0.52	0.62		
	꿈드림센터	97	0.49	0.56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0.56	0.47		
복합외상후 스트레스 전체	중학교	709	0.44	0.45	3.796	.004
	인문계 고등학교	555	0.43	0.45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3	0.56	0.57		
	꿈드림센터	97	0.54	0.49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0.61	0.50		

(3) 가족형태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전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의 가족 유형에 따른 차이는 <표 28>에 제시하였다. 가족형태에 따른 복합외상경험 후 스트레스에 있어서 친부모 가정은 평균 .42(SD.44), 조부모 및 친척가정 평균 .45(SD.47), 친구, 센터, 독거 평균 .56(SD.51), 새부모가정 평균 .51(SD .52)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복합외상 후 결과를 보면 친구, 센터, 독거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새부모 가정, 조부모 및 친척가정, 친부모 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 변화, 의미체계 변화와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전체점수는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5).

<표 28> 가족형태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가족형태	N	평균	표준편차	F	p
정서 및 충동조절기능변화	친부모 가정	1018	0.44	0.42	.560	.641
	조부모 및 친척 가정	203	0.47	0.43		
	친구,센터,독거	75	0.50	0.50		
	새부모 가정	45	0.48	0.48		
	친부모 가정	1019	0.61	0.60		
주의력과 의식기능변화	친부모 가정	1019	0.61	0.60	1.411	.238
	조부모 및 친척 가정	203	0.66	0.63		
	친구,센터,독거	75	0.74	0.63		
	새부모 가정	45	0.64	0.68		
	친부모가정	1014	0.38	0.57		
자가지각변화	친부모가정	1014	0.38	0.57	2.332	.072
	조부모 및 친척 가정	203	0.41	0.61		
	친구,센터,독거	75	0.55	0.63		
	새부모 가정	45	0.46	0.56		
	친부모 가정	1014	0.43	0.59		
대인관계변화	친부모 가정	1014	0.43	0.59	6.591	.000
	조부모 및 친척 가정	203	0.49	0.58		
	친구,센터,독거	75	0.70	0.74		
	새부모 가정	45	0.65	0.68		
	친부모가정	1014	0.28	0.47		
신체화 증상	친부모가정	1014	0.28	0.47	1.668	.172
	조부모 및 친척 가정	203	0.32	0.51		
	친구,센터,독거	75	0.39	0.57		
	새부모 가정	45	0.35	0.55		
	친부모 가정	1014	0.36	0.48		
의미체계변화	친부모 가정	1014	0.36	0.48	2.703	.044
	조부모 및 친척 가정	203	0.37	0.51		
	친구,센터,독거	75	0.50	0.60		
	새부모 가정	45	0.48	0.53		
	친부모 가정	1013	0.42	0.44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전체	친부모 가정	1013	0.42	0.44	3.107	.026
	조부모 및 친척 가정	203	0.45	0.47		
	친구,센터,독거	75	0.56	0.51		
	새부모 가정	45	0.51	0.52		

(4)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가정경제적수준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와 하위요인별 집단 간 차이에 결과는 <표 29>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복합외상경험 후 스트레스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편은 평균 .81(SD.59), 어려운 편은 평균 .68(SD.60), 보통이다 평균 .43(SD.44), 잘 사는 편이다 평균 .40(SD .52), 매우 잘 사는 편이다 평균 .35(SD.46)으로 나타났다. 가족 경제수준에 따른 복합외상 후 결과를 보면 매우 어려운 편이다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잘 사는 편이다, 매우 잘 사는 편이다 순 결과로 나왔다. 청소년이 인지한 경제수준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과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전체점수는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p<.001) 가정 경제수준이 어려울수록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경험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9>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가정경제수준	N	평균	표준편차	F	p
정서 및 충동조절 기능변화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0.75	0.58	9.666	.000
	어려운 편이다	146	0.64	0.56		
	보통이다	1065	0.45	0.43		
	잘 사는 편이다	244	0.44	0.40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0.39	0.39		
주의력과 의식기능변화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1.00	0.67	7.651	.000
	어려운 편이다	146	0.85	0.69		
	보통이다	1066	0.63	0.60		
	잘 사는 편이다	244	0.59	0.59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0.50	0.65		
자기지각변화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0.85	0.74	12.779	.000
	어려운 편이다	146	0.68	0.74		
	보통이다	1063	0.39	0.57		
	잘 사는 편이다	242	0.37	0.54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0.25	0.47		
대인관계변화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1.04	0.82	14.914	.000
	어려운 편이다	146	0.77	0.76		
	보통이다	1063	0.46	0.60		
	잘 사는 편이다	242	0.41	0.57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0.39	0.63		
신체화 증상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0.56	0.66	12.484	.000
	어려운 편이다	146	0.56	0.68		
	보통이다	1063	0.28	0.45		
	잘 사는 편이다	242	0.27	0.51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0.26	0.49		
의미체계변화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0.68	0.76	10.692	.000
	어려운 편이다	146	0.60	0.65		
	보통이다	1063	0.37	0.47		
	잘 사는 편이다	242	0.33	0.48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0.33	0.53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전체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0.81	0.59	15.479	.000
	어려운 편이다	146	0.68	0.60		
	보통이다	1062	0.43	0.44		
	잘 사는 편이다	242	0.40	0.44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0.35	0.46		

3) 지원체계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1)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의 차이와 하위요인별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30>과 같다.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른 복합외상경험 후 스트레스에 있어서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 .42(SD.46), 지원이 있는 경우 평균 .56(SD.52)으로 나타났다.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과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전체점수는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1) 결과로 보면 외부지원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0>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국가나 외부지원	N	평균	표준편차	t	p
정서 및 충동조절 기능 변화	없음	830	0.44	0.45	-2.859	.004
	있음	242	0.53	0.46		
주의력과 의식기능변화	없음	831	0.59	0.60	-4.031	.000
	있음	242	0.77	0.67		
자기지각변화	없음	827	0.38	0.59	-3.227	.001
	있음	242	0.53	0.65		
대인관계변화	없음	827	0.45	0.62	-3.540	.000
	있음	242	0.62	0.69		
신체화 증상	없음	827	0.28	0.50	-4.299	.000
	있음	242	0.44	0.59		
의미체계변화	없음	827	0.36	0.51	-3.060	.002
	있음	242	0.48	0.55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전체	없음	826	0.42	0.46	-4.121	.000
	있음	242	0.56	0.52		

(2)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가족의 물질적 지원 수준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와 하위요인별 집단 간의 차이는 <표 31>과 같다.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른 복합외상경험 후 스트레스에 있어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경우에는 평균 .61(SD.58), 부족하다 경우 평균 .71(SD.59), 보통이다 평균 .45(SD.45), 받고 있는 편이다 평균 .44(SD.46), 충분히 받고 있다 평균 .40(SD.41)으로 나타났다.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과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전체점수는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 < .01$). 결과를 보면 부족하다,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가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가족의 물질적 지원	N	평균	표준편차	F	p
정서 및 충동조절 기능변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2	0.59	0.51	9.000	.000
	부족하다	111	0.66	0.56		
	보통이다	421	0.46	0.44		
	받고 있는 편이다	313	0.47	0.46		
	충분히 받고 있다	585	0.42	0.38		
주의력과 의식기능변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2	0.68	0.62	3.917	.004
	부족하다	111	0.86	0.70		
	보통이다	421	0.64	0.61		
	받고 있는 편이다	313	0.64	0.59		
	충분히 받고 있다	586	0.61	0.61		
자기지각변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2	0.63	0.77	12.439	.000
	부족하다	111	0.71	0.72		
	보통이다	420	0.44	0.60		
	받고 있는 편이다	312	0.39	0.56		
	충분히 받고 있다	583	0.34	0.53		
대인관계변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2	0.73	0.79	13.059	.000
	부족하다	111	0.81	0.79		
	보통이다	420	0.49	0.62		
	받고 있는 편이다	312	0.46	0.61		
	충분히 받고 있다	583	0.41	0.56		
신체화 증상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2	0.47	0.68	10.228	.000
	부족하다	111	0.55	0.66		
	보통이다	420	0.31	0.47		
	받고 있는 편이다	312	0.29	0.50		
	충분히 받고 있다	583	0.26	0.43		
의미체계변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2	0.58	0.62	13.766	.000
	부족하다	111	0.66	0.65		
	보통이다	420	0.37	0.46		
	받고 있는 편이다	312	0.38	0.51		
	충분히 받고 있다	583	0.33	0.46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전체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2	0.61	0.58	13.519	.000
	부족하다	111	0.71	0.59		
	보통이다	420	0.45	0.45		
	받고 있는 편이다	312	0.44	0.46		
	충분히 받고 있다	582	0.40	0.41		

(3)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가족의 정서적 지원 수준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와 하위요인별 집단 간의 차이는 <표 32>과 같다.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복합외상경험 후 스트레스에 있어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경우에는 평균 .82(SD.65), 부족하다 경우 평균 .77(SD.57), 보통이다 평균 .48(SD.47), 받고 있는 편이다 평균 .43(SD.41), 충분히 받고 있다 평균 .32(SD.36)으로 나타났다.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과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전체점수는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 < .01$). 결과를 보면 부족하다,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가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가족의 정서적 지원	N	평균	표준편차	F	p
정서 및 충동조절기능 변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3	0.68	0.56	19.800	.000
	부족하다	121	0.71	0.56		
	보통이다	496	0.47	0.44		
	받고 있는 편이다	319	0.47	0.40		
	충분히 받고 있다	499	0.37	0.38		
주의력과 의식기능변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3	0.92	0.82	14.090	.000
	부족하다	121	0.91	0.68		
	보통이다	496	0.66	0.61		
	받고 있는 편이다	320	0.66	0.56		
	충분히 받고 있다	499	0.53	0.57		
자기지각변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3	0.87	0.84	34.772	.000
	부족하다	121	0.78	0.77		
	보통이다	493	0.46	0.60		
	받고 있는 편이다	319	0.39	0.52		
	충분히 받고 있다	498	0.25	0.46		
대인관계변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3	0.96	0.86	38.919	.000
	부족하다	121	0.92	0.80		
	보통이다	493	0.53	0.63		
	받고 있는 편이다	319	0.45	0.54		
	충분히 받고 있다	498	0.31	0.49		
신체화 증상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3	0.71	0.76	32.519	.000
	부족하다	121	0.58	0.63		
	보통이다	493	0.35	0.52		
	받고 있는 편이다	319	0.28	0.43		
	충분히 받고 있다	498	0.18	0.36		
의미체계변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3	0.75	0.73	36.251	.000
	부족하다	121	0.73	0.60		
	보통이다	493	0.42	0.52		
	받고 있는 편이다	319	0.35	0.46		
	충분히 받고 있다	498	0.25	0.38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전체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3	0.82	0.65	40.041	.000
	부족하다	121	0.77	0.57		
	보통이다	493	0.48	0.47		
	받고 있는 편이다	318	0.43	0.41		
	충분히 받고 있다	498	0.32	0.36		

4. 대인관계문제

1) 대인관계문제의 전반적인 특성

조사대상 청소년이 경험한 대인관계문제의 전체적인 특성과 각 하위 요인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표 33>와 같다.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으로 하위요인을 구별하였다. 자기중심성의 경우에는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1.95(SD=.82)의 수준으로 보였다. 냉담의 경우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2.13(SD=.91)의 수준으로 보였다. 사회적 억제 경우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2.13(SD=1.00)의 수준으로 보였다. 비주장성 경우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2.37(SD=1.00)의 수준으로 보였다. 과순응성의 경우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2.40(SD=1.20)의 수준으로 보였다. 대인관계 하위요인 중 과순응성 평균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와 있으며, 비주장성, 사회적억제, 냉담, 자기중심성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대인관계문제 특성

하위 요인	평균	표준편차
자기중심성	1.95	0.82
냉담	2.13	0.91
사회적 억제	2.13	1.00
비주장성	2.37	1.00
과순응성	2.40	1.20
전체	2.19	0.87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1)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별로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4>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대인관계문제에 있어서 남자는 평균 2.12(SD.87), 여자는 평균 2.25(SD.87)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 중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과 대인관계문제에 있어 전체점수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 < .01$). 요약하자면 각 영역의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자기중심성	남자	744	1.97	0.84	.993	.321
	여자	751	1.93	0.79		
냉담	남자	745	2.08	0.91	-1.692	.091
	여자	755	2.16	0.90		
사회적 억제	남자	747	2.06	0.96	-2.695	.007
	여자	753	2.19	1.03		
비주장성	남자	744	2.25	0.96	-4.588	.000
	여자	753	2.49	1.02		
과순응성	남자	749	2.26	1.14	-4.237	.000
	여자	757	2.52	1.24		
대인관계문제	남자	738	2.12	0.87	-2.882	.004
	여자	744	2.25	0.87		

(2) 소속기관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별로 있어서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5>에 제시하였다. 소속기관에 따른 대인관계문제에 있어서 중학생은 평균 2.13(SD.88), 인문계 고등학생은 평균 2.22(SD.86), 전문계(실업계) 고등학생은 평균 2.27(SD.84), 꿈드림센터 평균 2.36(SD .88), 학교나 검정고시학원 다니지 않음 평균 2.37(SD .86)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에 대인관계문제 결과를 보면 학교나 검정고시학원 다니지 않음이 제일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위로 꿈드림센터,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 중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와 대인관계문제 전체점수는 소속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5).

<표 35> 소속기관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	소속기관	N	평균	표준편차	F	p
자기중심성	중학교	705	1.91	0.82	3.108	.015
	인문계 고등학교	554	1.94	0.81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2	2.08	0.80		
	꿈드림센터	97	2.12	0.83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8	2.19	0.76		
냉담	중학교	711	2.05	0.91	4.621	.001
	인문계 고등학교	553	2.14	0.89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1	2.22	0.87		
	꿈드림센터	97	2.36	0.94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2.46	0.93		
사회적 억제	중학교	709	2.04	0.98	4.544	.001
	인문계 고등학교	555	2.16	1.00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1	2.21	0.95		
	꿈드림센터	97	2.40	1.04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2.44	1.03		
비주장성	중학교	707	2.31	1.01	1.785	.129
	인문계 고등학교	553	2.39	0.97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2	2.43	0.97		
	꿈드림센터	97	2.58	1.03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2.42	0.90		
과순응성	중학교	711	2.35	1.21	.859	.488
	인문계 고등학교	557	2.47	1.21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3	2.35	1.18		
	꿈드림센터	97	2.36	1.10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2.41	1.02		
대인관계문제	중학교	700	2.13	0.88	2.625	.033
	인문계 고등학교	550	2.22	0.86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98	2.27	0.84		
	꿈드림센터	97	2.36	0.88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8	2.37	0.83		

(3) 가족형태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의 각 하위요인의 가족 유형에 따른 차이는 <표 36>에 제시하였다. 가족 형태에 따른 대인관계문제에 있어서 친부모 가정은 평균 2.15(SD.87), 조부모 및 친척가정 평균 2.20(SD.85), 친구, 센터, 독거 평균 2.27(SD.80), 새부모가정 평균 2.39(SD .74)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따른 복합외상 후 결과를 보면 친구, 센터, 독거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새부모 가정, 친부모 가정, 조부모 및 친척 순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 중 자기중심성, 냉담은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p<.05) 특히 친구, 센터, 독거로 거주할 경우에 대인관계문제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6> 가족형태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	가족형태	N	평균	표준편차	F	p
자기중심성	친부모 가정	1009	1.90	0.81	4.391	.004
	조부모 및 친척 가정	202	2.00	0.81		
	친구, 센터, 독거	75	2.16	0.78		
	새부모 가정	44	2.18	0.88		
냉담	친부모 가정	1014	2.08	0.90	3.022	.029
	조부모 및 친척 가정	201	2.10	0.87		
	친구, 센터, 독거	75	2.28	0.83		
사회적 억제	친부모 가정	1014	2.08	0.99	1.186	.314
	조부모 및 친척 가정	203	2.13	0.94		
	친구, 센터, 독거	74	2.25	0.98		
비주장성	친부모 가정	1011	2.34	0.99	.207	.891
	조부모 및 친척 가정	203	2.38	0.99		
	친구, 센터, 독거	75	2.37	0.90		
	새부모 가정	43	2.44	0.91		
과순응성	친부모 가정	1018	2.37	1.22	.648	.584
	조부모 및 친척 가정	203	2.41	1.19		
	친구, 센터, 독거	75	2.29	1.02		
	새부모 가정	44	2.59	0.95		
대인관계문제	친부모 가정	1001	2.15	0.87	1.570	.195
	조부모 및 친척 가정	201	2.20	0.85		
	친구, 센터, 독거	74	2.27	0.80		
	새부모 가정	43	2.39	0.74		

(4)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대인관계문제와 하위요인별 집단 간 차이에 결과는 <표 37>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대인관계문제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편은 평균 2.58(SD.93), 어려운 편은 평균 2.62(SD.96), 보통이다 평균 2.20(SD.84), 잘 사는 편이다 평균 1.96(SD .85), 매우 잘 사는 편이다 평균 1.62(SD.81)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결과를 보면 매우 어려운 편이다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잘 사는 편이다, 매우 잘 사는 편이다 순 결과로 나왔다. 대인관계문제의 모든 하위 요인과 대인관계문제 전체점수는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 < .001$). 특히 청소년들이 가정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이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대인관계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	가정경제수준	N	평균	표준편차	F	p
자기중심성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2.43	0.96	15.001	.000
	어려운 편이다	145	2.32	0.93		
	보통이다	1057	1.94	0.78		
	잘 사는 편이다	241	1.77	0.79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1.56	0.85		
냉담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2.48	0.92	17.559	.000
	어려운 편이다	146	2.55	0.99		
	보통이다	1060	2.13	0.88		
	잘 사는 편이다	242	1.89	0.87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1.51	0.75		
사회적 억제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2.70	1.12	19.574	.000
	어려운 편이다	145	2.65	1.15		
	보통이다	1061	2.12	0.96		
	잘 사는 편이다	242	1.86	0.93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1.61	0.86		
비주장성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2.81	1.09	18.409	.000
	어려운 편이다	145	2.85	1.07		
	보통이다	1059	2.38	0.95		
	잘 사는 편이다	241	2.13	1.02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1.65	0.83		
과순응성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2.46	1.10	6.378	.000
	어려운 편이다	146	2.71	1.27		
	보통이다	1064	2.42	1.17		
	잘 사는 편이다	244	2.20	1.24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1.79	1.14		
대인관계문제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2.58	0.93	18.629	.000
	어려운 편이다	144	2.62	0.96		
	보통이다	1049	2.20	0.84		
	잘 사는 편이다	237	1.96	0.85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1.62	0.81		

3) 지원체계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1)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차이와 하위요인별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38>과 같다.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에 있어서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 2.10(SD.87), 지원이 있는 경우 평균 2.30(SD.89)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의 모든 하위 요인과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전체점수는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 < .01$). 요약하자면, 외부지원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대인관계문제 척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8>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	국가나 외부지원	N	평균	표준편차	t	p
자기중심성	없음	824	1.87	0.81	-3.069	.002
	있음	237	2.05	0.82	-3.069	.002
냉담	없음	827	2.03	0.90	-3.251	.001
	있음	239	2.24	0.91	-3.251	.001
사회적 억제	없음	826	2.03	0.99	-3.503	.000
	있음	239	2.29	1.03	-3.503	.000
비주장성	없음	826	2.26	0.98	-3.429	.001
	있음	240	2.51	1.02	-3.429	.001
과순응성	없음	830	2.31	1.22	-1.663	.097
	있음	241	2.46	1.19	-1.663	.097
대인관계문제	없음	819	2.10	0.87	-3.204	.001
	있음	234	2.30	0.89	-3.204	.001

2)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가족의 물질적 지원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별 집단 간의 차이는 <표 39>과 같다.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에 있어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경우에는 평균 2.44(SD.90), 부족하다 경우 평균 2.47(SD.89), 보통이다 평균 2.27(SD.84), 받고 있는 편이다 평균 2.26(SD.84), 충분히 받고 있다 평균 2.06(SD.87)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문제가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1). 요약하자면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부족하다가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9>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	가족의 물질적 지원	N	평균	표준편차	F	p
자기중심성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1	2.24	0.90	15.185	.000
	부족하다	111	2.22	0.90		
	보통이다	418	2.06	0.80		
	받고 있는 편이다	311	1.97	0.78		
	충분히 받고 있다	579	1.77	0.78		
냉담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2	2.40	0.95	13.637	.000
	부족하다	111	2.42	0.93		
	보통이다	420	2.21	0.87		
	받고 있는 편이다	312	2.20	0.90		
	충분히 받고 있다	580	1.93	0.90		
사회적 억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2	2.52	1.06	12.327	.00
	부족하다	110	2.36	1.00		
	보통이다	421	2.23	0.96		
	받고 있는 편이다	312	2.17	0.95		
	충분히 받고 있다	580	1.92	1.00		
비주장성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1	2.58	1.03	12.223	.000
	부족하다	111	2.72	1.00		
	보통이다	419	2.44	0.95		
	받고 있는 편이다	310	2.48	0.97		
	충분히 받고 있다	581	2.17	1.00		
과순응성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2	2.51	1.15	3.852	.004
	부족하다	111	2.66	1.24		
	보통이다	421	2.43	1.09		
	받고 있는 편이다	313	2.48	1.20		
	충분히 받고 있다	584	2.26	1.26		
대인관계문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0	2.44	0.90	12.684	.000
	부족하다	110	2.47	0.89		
	보통이다	416	2.27	0.84		
	받고 있는 편이다	309	2.26	0.84		
	충분히 받고 있다	572	2.01	0.87		

(3)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가족의 정서적 지원 수준에 따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와 하위요인별 집단 간의 차이는 <표 40>과 같다.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에 있어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경우에는 평균 2.50(SD.94), 부족하다 경우 평균 2.61(SD.84), 보통이다 평균 2.35(SD.87), 받고 있는 편이다 평균 2.17(SD.77), 충분히 받고 있다 평균 1.19(SD.84)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정서적 지원의 모든 하위요인과 대인관계문제 전체점수는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1). 결과를 보면 부족하다,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대인관계문제 척도가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0>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	가족의 정서적 지원	N	평균	표준편차	F	p
자기중심성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3	2.28	0.93	31.561	.000
	부족하다	120	2.27	0.80		
	보통이다	494	2.14	0.83		
	받고 있는 편이다	318	1.91	0.78		
	충분히 받고 있다	493	1.67	0.72		
냉담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3	2.46	0.97	30.320	.000
	부족하다	120	2.52	0.93		
	보통이다	494	2.32	0.93		
	받고 있는 편이다	318	2.10	0.82		
	충분히 받고 있다	497	1.82	0.83		
사회적 억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3	2.49	1.07	24.936	.000
	부족하다	119	2.60	1.15		
	보통이다	495	2.29	0.99		
	받고 있는 편이다	318	2.10	0.90		
	충분히 받고 있다	497	1.83	0.94		
비주장성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3	2.69	1.13	21.405	.000
	부족하다	120	2.79	0.98		
	보통이다	493	2.52	0.97		
	받고 있는 편이다	316	2.38	0.89		
	충분히 받고 있다	498	2.08	1.00		
과순응성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3	2.58	1.28	10.467	.000
	부족하다	121	2.88	1.16		
	보통이다	496	2.49	1.16		
	받고 있는 편이다	319	2.39	1.14		
	충분히 받고 있다	499	2.17	1.23		
대인관계문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3	2.50	0.94	27.928	.000
	부족하다	119	2.61	0.84		
	보통이다	491	2.35	0.87		
	받고 있는 편이다	313	2.17	0.77		
	충분히 받고 있다	489	1.91	0.84		

5. 자아탄력성

1) 아동기 자아탄력성의 전반적인 특성

조사대상 청소년이 경험한 자아탄력성의 전체적인 특성과 각 하위 요인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표 41>와 같다.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으로 하위요인을 구별하였다. 대인관계의 경우에는 최소 0점에서 최대 3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2.82(SD=.69)의 수준으로 보였다. 활력성의 경우 최소 0점에서 최대 3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2.76(SD=.75)의 수준으로 보였다. 감정통제 경우 최소 0점에서 최대 3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2.35(SD=.87)의 수준으로 보였다. 호기심 최소 0점에서 최대 3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2.17(SD=0.77)의 수준으로 보였다. 낙관성의 경우 최소 0점에서 최대 3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1.19(SD=.84)의 수준으로 보였다. 요약하자면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중 활력성 평균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와 있으며, 대인관계, 감정통제, 낙관성, 호기심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자아탄력성 특성

하위 요인	평균	표준편차
대인관계	2.82	0.69
활력성	2.76	0.75
감정통제	2.42	0.81
호기심	2.46	0.79
낙관성	2.56	0.81
전체	2.61	0.64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1)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별로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2>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자아탄력성에 있어서 남자는 평균 2.67(SD.69), 여자는 평균 2.54(SD.59)로 나타났으며,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과 자아탄력성 전체점수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 < .01$).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평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대인관계	남자	746	2.84	0.73	.987	.324
	여자	755	2.81	0.65		
활력성	남자	746	2.79	0.78	1.691	.091
	여자	759	2.73	0.71		
감정통제	남자	746	2.49	0.85	3.347	.001
	여자	757	2.35	0.76		
호기심	남자	741	2.57	0.80	5.598	.000
	여자	753	2.34	0.77		
낙관성	남자	747	2.65	0.83	4.247	.000
	여자	756	2.48	0.78		
자아탄력성 전체	남자	731	2.67	0.69	3.937	.000
	여자	746	2.54	0.59		

(2) 소속기관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별로 있어서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3>에 제시하였다. 소속기관에 따른 자아탄력성에 있어서 중학생은 평균 2.64(SD.62), 인문계 고등학생은 평균 2.13(SD.64), 전문계(실업계) 고등학생은 평균 2.62(SD.68), 꿈드림센터 평균 2.43(SD .75), 학교나 검정고시학원 다니지 않음 평균 2.16(SD .53)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에 자아탄력성 결과를 보면 중학생, 인문계 고등학생이 제일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위로 전문계 고등학교, 꿈드림센터, 학교나 검정고시학원 다니지 않음 순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과 자아탄력성 전체 점수는 소속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1).

<표 43> 소속기관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소속기관	N	평균	표준편차	F	p
대인관계	중학교	710	2.85	0.67	8.597	.000
	인문계 고등학교	552	2.88	0.68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3	2.68	0.72		
	꿈드림센터	97	2.63	0.81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2.38	0.55		
활력성	중학교	711	2.78	0.73	6.082	.000
	인문계 고등학교	555	2.78	0.73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3	2.80	0.76		
	꿈드림센터	97	2.57	0.84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2.28	0.72		
감정통제	중학교	709	2.44	0.77	2.358	.052
	인문계 고등학교	556	2.42	0.82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3	2.45	0.84		
	꿈드림센터	96	2.23	0.95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2.18	0.74		
호기심	중학교	708	2.48	0.78	3.709	.005
	인문계 고등학교	552	2.47	0.80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1	2.52	0.79		
	꿈드림센터	96	2.31	0.85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8	2.04	0.68		
낙관성	중학교	709	2.60	0.79	5.797	.000
	인문계 고등학교	555	2.58	0.82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3	2.59	0.84		
	꿈드림센터	97	2.42	0.85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	2.01	0.73		
자아탄력성 전체	중학교	700	2.64	0.62	6.840	.000
	인문계 고등학교	544	2.63	0.64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1	2.62	0.68		
	꿈드림센터	95	2.43	0.75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8	2.16	0.53		

(3) 가족형태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의 각 하위요인의 가족 유형에 따른 차이는 <표 44>에 제시하였다. 가족 형태에 따른 자아탄력성 있어서 친부모 가정은 평균 2.64(SD.63), 조부모 및 친척가정 평균 2.60(SD.65), 친구, 센터, 독거 평균 2.45(SD.71), 새부모가정 평균 2.44(SD .87)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자아탄력성 결과를 보면 친부모 가정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조부모 및 친척가정, 친구, 센터, 독거, 새부모 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 감정통제와 자아탄력성 전체점수는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5).

<표 44> 가족형태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가족형태	N	평균	표준편차	F	p
대인관계	친부모 가정	1015	2.87	0.66	4.756	.003
	조부모 및 친척 가정	199	2.76	0.75		
	친구,센터,독거	75	2.64	0.72		
	새부모 가정	45	2.67	0.66		
	친부모 가정	1017	2.78	0.73		
활력성	친부모 가정	1017	2.78	0.73	1.759	.153
	조부모 및 친척 가정	201	2.76	0.72		
	친구,센터,독거	75	2.58	0.84		
	새부모 가정	45	2.71	0.82		
	친부모 가정	1015	2.46	0.81		
감정통제	친부모 가정	1015	2.46	0.81	3.476	.016
	조부모 및 친척가정	201	2.39	0.77		
	친구,센터,독거	75	2.26	0.88		
	새부모 가정	45	2.14	0.81		
	친부모 가정	1006	2.46	0.79		
호기심	친부모 가정	1006	2.46	0.79	1.031	.378
	조부모 및 친척가정	203	2.50	0.78		
	친구,센터,독거	75	2.38	0.83		
	새부모 가정	44	2.30	0.82		
	친부모 가정	1014	2.61	0.80		
낙관성	친부모 가정	1014	2.61	0.80	2.452	.062
	조부모 및 친척 가정	203	2.51	0.82		
	친구,센터,독거	75	2.41	0.85		
	새부모 가정	45	2.43	0.86		
	친부모 가정	998	2.64	0.63		
자아탄력성 전체	친부모 가정	998	2.64	0.63	3.125	.025
	조부모 및 친척 가정	195	2.60	0.65		
	친구,센터,독거	75	2.45	0.71		
	새부모 가정	44	2.44	0.67		

(4)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자아탄력성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자아탄력성 스트레스와 하위요인별 집단 간 차이에 결과는 <표 4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자아탄력성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편은 평균 2.53(SD.70), 어려운 편은 평균 2.39(SD.66), 보통이다 평균 2.58(SD.62), 잘 사는 편이다 평균 2.82(SD .65), 매우 잘 사는 편이다 평균 2.87(SD.71)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자아탄력성 결과를 보면 매우 잘사는 편이다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잘 사는 편이다, 보통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려운 편이다 순 결과로 나왔다.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 요인과 자아탄력성 전체점수는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1). 요약하자면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자아탄력성이 매우 잘 사는 편이다, 잘 사는 편이다 청소년이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가정경제수준	N	평균	표준편차	F	p
대인관계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2.71	0.72	11.415	.000
	어려운 편이다	145	2.60	0.73		
	보통이다	1059	2.80	0.67		
	잘 사는 편이다	244	3.03	0.67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3.12	0.79		
활력성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2.63	0.88	8.912	.000
	어려운 편이다	145	2.53	0.77		
	보통이다	1063	2.74	0.72		
	잘 사는 편이다	244	2.95	0.74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3.03	0.90		
감정통제	매우 어려운 편이다	27	2.37	0.88	10.427	.000
	어려운 편이다	146	2.13	0.78		
	보통이다	1062	2.40	0.79		
	잘 사는 편이다	243	2.65	0.82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2.61	0.99		
호기심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2.48	0.85	8.368	.000
	어려운 편이다	144	2.27	0.77		
	보통이다	1056	2.42	0.77		
	잘 사는 편이다	242	2.67	0.83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2.77	0.86		
낙관성	매우 어려운 편이다	28	2.46	0.83	9.399	.000
	어려운 편이다	145	2.37	0.85		
	보통이다	1062	2.53	0.79		
	잘 사는 편이다	243	2.81	0.79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2.82	0.93		
자아탄력성 전체	매우 어려운 편이다	27	2.53	0.70	12.923	.000
	어려운 편이다	141	2.39	0.66		
	보통이다	1045	2.58	0.62		
	잘 사는 편이다	240	2.82	0.65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3	2.87	0.71		

3) 지원체계에 따른 자아탄력성

(1)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른 자아탄력성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른 자아탄력성 차이와 하위요인별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른 자아탄력성에 있어서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 2.66(SD.64), 지원이 있는 경우 평균 2.58(SD.66)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감정통제는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5). 결과를 보면 국가나 외부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가 받는 경우보다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국가나 외부지원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국가나 외부지원	N	평균	표준편차	t	p
대인관계	없음	825	2.88	0.68	1.735	.083
	있음	242	2.79	0.74		
활력성	없음	828	2.82	0.73	1.403	.161
	있음	242	2.74	0.77		
감정통제	없음	828	2.49	0.80	2.473	.014
	있음	241	2.34	0.85		
호기심	없음	820	2.51	0.79	.815	.415
	있음	240	2.46	0.82		
낙관성	없음	828	2.61	0.82	1.110	.267
	있음	241	2.55	0.82		
자아탄력성 전체	없음	812	2.66	0.64	1.746	.081
	있음	238	2.58	0.66		

(2)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른 자아탄력성

가족의 물질적 지원 수준에 따른 자아탄력성 하위요인별 집단 간의 차이는 <표 47>과 같다.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른 자아탄력성에 있어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경우에는 평균 2.46(SD.78), 부족하다 경우 평균 2.52(SD.65), 보통이다 평균 2.55(SD.66), 받고 있는 편이다 평균 2.61(SD.61), 충분히 받고 있다 평균 2.59(SD.61)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 활력성, 낙관성과 자아탄력성 전체점수는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 < .01$). 가족의 물질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가족의 물질적 지원	N	평균	표준편차	F	p
대인관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1	2.60	0.79	8.224	.000
	부족하다	110	2.67	0.71		
	보통이다	419	2.75	0.71		
	받고 있는 편이다	310	2.89	0.64		
	충분히 받고 있다	585	2.92	0.66		
활력성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2	2.57	0.88	3.961	.003
	부족하다	111	2.72	0.73		
	보통이다	419	2.71	0.74		
	받고 있는 편이다	312	2.74	0.73		
	충분히 받고 있다	585	2.85	0.73		
감정통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1	2.37	0.89	2.358	.052
	부족하다	111	2.29	0.84		
	보통이다	421	2.36	0.81		
	받고 있는 편이다	312	2.43	0.78		
	충분히 받고 있다	582	2.48	0.80		
호기심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0	2.37	0.85	1.798	.127
	부족하다	109	2.43	0.77		
	보통이다	421	2.40	0.81		
	받고 있는 편이다	310	2.44	0.77		
	충분히 받고 있다	579	2.52	0.79		
낙관성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82	2.41	0.94	5.209	.000
	부족하다	111	2.42	0.87		
	보통이다	420	2.50	0.82		
	받고 있는 편이다	311	2.54	0.79		
	충분히 받고 있다	583	2.68	0.77		
자아탄력성 전체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9	2.46	0.78	4.939	.001
	부족하다	108	2.52	0.65		
	보통이다	416	2.55	0.66		
	받고 있는 편이다	304	2.61	0.61		
	충분히 받고 있다	575	2.69	0.61		

(3)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자아탄력성

가족의 정서적 지원 수준에 따른 자아탄력성 하위요인별 집단 간의 차이는 <표 48>과 같다.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자아탄력성에 있어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경우에는 평균 2.52(SD.78), 부족하다 경우 평균 2.31(SD.63), 보통이다 평균 2.45(SD.63), 받고 있는 편이다 평균 2.64(SD.57), 충분히 받고 있다 평균 2.82(SD.60)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자아탄력성 전체점수는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 < .001$). 요약하자면 충분히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8>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가족의 정서적 지원	N	평균	표준편차	F	p
대인관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2	2.64	0.88	34.836	.000
	부족하다	121	2.55	0.71		
	보통이다	492	2.64	0.68		
	받고 있는 편이다	318	2.85	0.61		
	충분히 받고 있다	498	3.08	0.62		
활력성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3	2.72	0.88	23.976	.000
	부족하다	121	2.43	0.83		
	보통이다	493	2.59	0.72		
	받고 있는 편이다	319	2.81	0.68		
	충분히 받고 있다	499	2.97	0.70		
감정통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3	2.32	0.99	18.712	.000
	부족하다	121	2.12	0.80		
	보통이다	493	2.25	0.78		
	받고 있는 편이다	319	2.45	0.75		
	충분히 받고 있다	497	2.63	0.79		
호기심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1	2.48	0.87	12.315	.000
	부족하다	120	2.20	0.75		
	보통이다	492	2.32	0.78		
	받고 있는 편이다	316	2.49	0.75		
	충분히 받고 있다	497	2.62	0.81		
낙관성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3	2.47	0.89	21.973	.000
	부족하다	121	2.22	0.80		
	보통이다	493	2.40	0.79		
	받고 있는 편이다	319	2.61	0.75		
	충분히 받고 있다	497	2.79	0.79		
자아탄력성 전체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1	2.52	0.78	30.299	.000
	부족하다	120	2.31	0.63		
	보통이다	481	2.45	0.63		
	받고 있는 편이다	315	2.64	0.57		
	충분히 받고 있다	492	2.82	0.60		

6.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복합외상경험의 영향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를 하위요인으로 하는 복합외상경험을 독립변수로, 정서 및 충동조절 기능의 변화, 주의력과 의식 기능의 변화, 자기지각의 변화, 대인관계에서의 변화, 신체화 증상, 의미체계의 변화를 하위요인으로 하는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대인관계문제를 조절변수로 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을 하였다.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영향 요인 검증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는 <표 49>와 같다. 분석 결과,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대인관계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연구모형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복합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유의미하게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대인관계문제는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므로 대인관계문제는 유사조절변수로 판단되었다.

즉, 대인관계문제는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청소년이 같은 복합외상 경험을 하더라도 대인관계문제가 없을 경우에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를 덜 경험할 수 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9>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F	R ²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193	.019		114.073	0.000	563.507***	.275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979	.041	.524	23.738	.000		

*** $p < .001$

7. 자아탄력성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정서 및 충동조절 기능의 변화, 주의력과 의식 기능의 변화, 자기지각의 변화, 대인관계에서의 변화, 신체화 증상, 의미체계의 변화를 하위요인으로 하는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자아탄력성 조절변수로 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을 하였다. 자아탄력성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은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연구모형에 대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조절변수의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은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므로 자아탄력성은 유사조절변수로 판단되었다. 즉, 자아탄력성은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청소년 같은 경우 복합외상경험을 하더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를 덜 경험할 수 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0> 자아탄력성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F	R ²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02	.012		.134	.893	38.229***	.025
자아탄력성	-.116	.019	-.158	-6.183	.000	38.229***	.025

*** $p < .001$

8. 아동기 외상경험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관계에 대한 자아탄력성 조절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기 외상경험의 정서적 확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를 하위요인 및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정서 및 충동조절 기능의 변화, 주의력과 의식 기능의 변화, 자기지각의 변화, 대인관계에서의 변화, 신체화 증상, 의미체계의 변화를 하위요인과 함께 독립변수로 지정한 후, 자아탄력성은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 통제, 호기심, 낙관성으로 하는 하위요인을 종속변수로 한 후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중다회귀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기 외상경험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아동기 외상경험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관련하여 자아탄력성에 효과가 있음을 결과로 보면 입증할 수 있다. 연구모형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을 통해 아동기 외상경험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조절변수로는 자아탄력성은 유사조절변수로 판단되었다.

즉, 자아탄력성은 아동기 복합외상 경험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복합외상경험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F	R ²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60	.010		44.866	.000		
아동기외상경험	.720	.030	.537	24.101	.000	224.372***	.322
자아탄력성	-.064	.016	-.089	-3.989	.000		
아동기외상경험* 자아탄력성	.145	.041	.078	3.529	.000		

*** $p < .001$

IV. 결론 및 제언

I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아동기 복합외상경험과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 문제,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쉼터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1,525명의 자료가 회수되어 이 자료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 소속기관, 지역, 거주형태, 부모 출신국, 경제수준, 국가 및 단체의 경제적 지원, 부모의 물질적·경제적 지원, 청소년전화 1388 인지 및 이용 여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 및 이용 여부 등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특징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연구대상자 1,525명 중 남자 750명(49.2%), 여자 759명(49.8%)으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은 16세가 363명(23.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17세 307명(20.1%), 18세 274명(18%), 15세 256명(16.8%), 14세 147명(9.6%)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속기관은 중학교 713명(46.8%), 인문계고등학교 557명(36.5%), 전문계고등학교 103명(6.8%),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97명(6.4%)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은 천안시 407명(26.7%), 아산시 144명(9.4%), 당진시 114명(7.5%), 홍성군 106명(7%)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전화 1388 인지 및 이용 여부는 “알고 있다”가 850명(55.7%)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해본 적이 있다”가 87명(5.7%)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 및 이용여부는 “알고 있다”가 1,054명(69.1%)로 나타났으며, “이용해본 적이 있다”가 261명(17.1%)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특징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연구대상자 1,525명 중 남자 750명(49.2%), 여자 759명(49.8%)으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은 16세가 363명(23.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17세 307명(20.1%), 18세 274명(18%), 15세 256명(16.8%), 14세 147명(9.6%)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속기관은 중학교 713명(46.8%), 인문계고등학교 557명(36.5%), 전문계고등학교 103명(6.8%),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97명(6.4%)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은 천안시 407명(26.7%), 아산시 144명(9.4%), 당진시 114명(7.5%), 홍성군 106명(7%)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전화 1388 인지 및 이용 여부는 “알고 있다”가 850명(55.7%)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해본 적이 있다”가 87명(5.7%)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 및 이용여부는 “알고 있다”가 1,054명(69.1%)로 나타났으며, “이용해본 적이 있다”가 261명(17.1%)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특징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 자아탄력성에 대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의 하위요인에서는 정서적 방임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순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차이는 하위요인 중 정서적 학대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방임과 성적 학대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의 차이는 전체적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높은 수준의 아동기복합외상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의 차이는 전체적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정경제수준이 어려울수록 경험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나 외부지원의 차이는 전체적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에서 나타났는데 기초생계비, 의료비, 급식비, 긴급복지 지원비 등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들이 외상경험에 더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물질적·정서적 지원의 차이는 전체적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족의 물질적·정서적 지원이 부족하거나 없는 청소년들이 외상경험에 더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주의력과 의식기능변화, 대인관계에서의 변화, 정서 및 충동조절 기능의 변화, 자기지각의 변화, 의미체계의 변화, 신체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차이는 전체적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남녀 간 차이에서도 자기지각의 변화를 제외한 각 요인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의 차이는 전체적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청소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들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의 차이는 전체적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정경제수준이 어려울수록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나 외부지원의 차이는 전체적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기초생계비, 의료비, 급식비, 긴급복지지원비 등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더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물질적·정서적 지원의 차이는 전체적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족의 물질적·정서적 지원이 부족하거나 없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더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자들의 대인관계문제는 하위요인 중 과순응성, 비주장성, 사회적 억제, 냉담, 자기중심성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차이는 전체적인 대인관계문제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남녀 간 차이에서도 자기중심성과 냉담을 제외한 각 요인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의 차이는 전체적인 대인관계문제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들이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의 차이는 전체적인 대인관계 문제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정경제수준이 어려울수록 문제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나 외부지원의 차이는 전체적인 대인관계문제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기초생계비, 의료비, 급식비, 긴급복지지원비 등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들이 대인관계문제에 더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물질적·정서적 지원의 차이는 전체적인 대인관계문제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족의 물질적·정서적 지원이 부족하거나 없는 청소년들이 대인관계문제에 더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 대상자들의 자아탄력성은 남녀 간 전체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의 차이는 전체적인 자아탄력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학교, 인문계 및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등 학교 내 소속된 청소년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 수준의 차이는 전체적인 자아탄력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나 외부지원의 차이는 전체적인 자아탄력성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위요인 중 감정통제 부분에서 기초생계비, 의료비, 급식비, 긴급 복지지원비 등의 지원을 받지 않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물질적·정서적 지원의 차이는 전체적인 자아탄력성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족의 물질적·정서적 지원이 있거나 충분히 받는 청소년들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가 대인관계문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자아탄력성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이 높고,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논의 및 제언

충청남도 청소년의 아동기 복합외상경험과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문제,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자아탄력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을 한 청소년들 중 자아탄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에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절요인인 자아탄력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충남지역 내 청소년상담기관에서는 복합외상 예방교육 및 사후개입 시 자아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도·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 심리상담 시 자아탄력성을 강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내 청소년 및 가족 보호 체계 강화

아동기 복합외상경험의 결과 하위요인 중 정서적 방임,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의 경우 겉모습에서 잘 드러나지만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경우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관찰하고 보호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가족의 정서적 지원 부족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이에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청소년 및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지원으로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 강화

아동기 복합외상경험,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에 가정경제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편이다’,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위기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물질적 지원이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위기경험이 높았다. 즉, 경제적 수준의 어려움은 다양한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위기상황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상담 및 지역자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초·중·고등학교 대상 심리적 외상 예방교육 운영

청소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에 노출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상황을 경험할 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복합외상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내 청소년상담전문기관은 복합외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 내 학교 및 기관을 모집하고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 교육을 통해 복합외상에 대한 이해 확대와 위기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심리적 외상 사건 발생 시 긴급 개입 지원

2016년 외상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본 원에서 외상사건 발생 시 긴급 대응하는 “위기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긴급개입 매뉴얼” 집단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은 총 4회기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이해, 안정감 회복을 위한 자원 찾기,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감정다루기, 감정해소를 위한 애도로 구성되어 있다. 외상사건 발생 시 즉각적 개입으로 외상 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도내 15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포하고 지역 내 홍보하여 즉각적인 위기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 심리적 외상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시 재난 피해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 충남도청의 “2016 도정을 빛낸 10대 시책 선정” 보고에 따르면 자연재난과, 안전정책과에서 “안전충남비전 2050”수립으로 한발 빠른 재해대응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15개 시·군, 초·중·고 28만 명을 대상으로 지진대피훈련이 이루어졌다. 이 훈련처럼 심리적 외상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대응 훈련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남도청의 “안전충남비전2050”에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며, 심리적 외상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한 시스템구축으로 예방교육 및 긴급개입,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남지역 청소년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각 분야의 기능을 강화시켜 도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나래 (2008) 아동·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이 정서조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규, 김중술(2000). 아동기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4), 747-769
- 김혜림 (2012) 아동 청소년기 외상 경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경향, 강박사고 경향 간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현미, 정인선(2015) 청소년의 자기노출, 사회적지지 및 의도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2(1), 11-24
- 남보라 (2008) 한국판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노나나 (2014) 청소년의 학대 경험이 Complex PTSD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모상미 (2014)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윤선 (2014) 대형인명 사고로 인한 간접적 외상이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와 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나영 (2010)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복합외상 증상 및 성격 특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은희 (1997)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준하 (2011) 한국형 자살하지 않는 이유 대학생용 척도 개발 및 타당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성두헌 (2014) 청소년 또래 괴롭힘, 우울감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손용훈, 이주실, 박민철, 이상열 (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등
- 송선주 (2016) 성격강점, 사회적지지 및 공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지영 (2013) 북한이탈주민의 명시적, 암묵적 자존감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17-231
- 안현의 (2007) 복합 외상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6(1), 105-119
- 오윤선 (2014) PTSD 청소년의 기독교 집단교육상담 효과. 복음과 상담. 137-165
- 은임선 (2015) 특성화고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잠재적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은현정 외 (2005) 한국판 사건충격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4(3)
- 이광민 (2011) 한국판 아동용 외상 후 증상보고와 부모용 외상 후 증상 보고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 장진이(2010). 반복적 대인간 외상 경험자의 자기체계 손상과 심리적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지선 (2008)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지선, 안현의 (2008) 청소년 학교폭력의 복합외상(Complex Trauma)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45-160
- 최성환 (2012) 청소년 정서조절의 이해,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수경 (2013)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체계 손상의 매개효과. 카톨릭대학교 석사논문
- 한현아 (2007) 가정의 위험요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 관계의 질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Allen B. Lauterbach D(2007)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0(4), 587-595
- Allen J. G (1995) *Coping with trauma : A Guide to Self-understanding*.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iatric Pres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 Bak, C. (2005). Childhood sexual abuse and adult revictimiz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Unpublished manuscript.
- Berkowitz, N. F. (2004). Wendy Wall: In the wake of childhood trauma. *Brief Treatment and Crisis Intervention*, 4, 377 - 387.
- Bierer, L. M., Yehuda, R., Schmeidler, J., Mitropoulou, V., New, A. S., Silverman, J. M. (2003). Abuse and neglect in childhood: Relationship to personality disorder diagnoses. *CNS Spectrums* , 8, 737 - 754.
- Blais M. A. (1997) Clinical rating of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the DSM-IV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orders* , 185, 383-399.
- Briere J. (1984) The effects of childhood sexual abuse on later psychological functioning: Defining a post-sexual abuse syndrome.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Ontario, Canada.
- Briere, J., Runtz, M.(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 Neglect*, 12, 331-341.
- Briere J., Runtz M. (1990) Differential adult symptomatology associated with three types of child abuse histories. *Child Abuse & Neglect* , 14, 46 357-364.
- Everly, G. S. (1995). *Comprehensive handbook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Psychotherapy*, 32, 372.
- Eysenck, H. I. (1967). *The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 Springfield: C.C. Thomas.
- Felitti V, Anda R, Nordenberg D. (1998) Relationship of childhood abuse to many of the leading causes of death in adults: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 *Journal of Psychiatry* , 163, 245-258.
- Finkelhor, D., & Dzuiba-Leatherman, J.(1994). Victimization of children. *The American Psychologist*, 49, 413-426.
- Foa E. B., Riggs D. S. (1993)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rape.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273-303.
- Ford, J. D., Stockton, P., Kaltman, S. Green, B. L. (2006). Disorders of extreme stress (DESNOS) symptoms are associated with type and severity of interpersonal trauma exposure in a sample of healthy young woma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 21(11), 1399-1416.
- Goldberg, L. R. (1981).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search for universals in personality lexicons. In L. Wheeler(Ed.), *Review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59(6), 1216-1229.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 377-391.
- Herman, J. L. (1997) *Trauma and Recovery : The Aftermath of Violence*, New York: Basic Books.
- Herman, J.L., Perry, J.C., Van der Kolk, B.A. (1989). Childhood trauma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 22, 232-237.
- Luxenberg T. , Spinazzola, J. , van der Kolk (2001) Complex Trauma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 (DESNOS) Diagnosis, Part One: Assessment: Directions in *Psychiatry* , 21(lesson 15), 373-392

- Simons, L. E., King, D. W., King, L. A. (1991). One-tour versus two-tour Vietnam veterans: profile of military and extra military characteristic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Mid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 Terr, L. (1991). Childhood traumas: An outline and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 10-20.
- Van der Kolk B. A. (1996) The complexity of adaptation to trauma: Self-regulation, stimulus discrimination, and characterological development. In *Traumatic Stress: The Effects of Overwhelming Experience on Mind, Body, and Society*. New York: Guilford Press; 1996; 182-213.
- Van der Kolk B. A., Courtois, C. A. (2005) Complex developmental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5), 385-388.
- Van der Kolk B. A., Pelcovitz D., Roth S., Mandel F., McFarlane A., Herman, J. (1996). Dissociation, somatization, and affect dysregulation: The complexity of adaptation to traum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 83-93.
- Van der Kolk B. A., Roth S., Pelcovitz D., Mandel F. (1993) *Complex PTSD: Results of the PTSD Field Trial for DSM-IV*.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3.
- Van der Kolk, B. A., Van der Hart, O., & Burbridge, J.(1994). The treatment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Nato Asi Series D Behavioural and Social Sciences*, 80, 421-444.
- Zucker, M., Spinazzola, J., Blaustein, M., & van der Kolk, B. A.(2006). Dissociative symptomatology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 *Journal of Trauma and Dissociation*, 7, 19-32.

부록. 설문지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민법 제32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의거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연구, 상담, 보호, 긴급구조 및 활동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가에서 설립한 청소년 전문기관입니다

이 설문지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생각과 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됨으로 여러분의 이름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전체 응답은 한꺼번에 통계처리 될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학교나 보호자에게 알려지지 않으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향후 청소년을 위한 제도나 지원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한 문장도 빠뜨리지 말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0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

본 연구는 충남 도내 15개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합니다.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태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통계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응답자는 조사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하며,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의 () 속에 √ 표시를 해 주세요

1. 성별 : ① 남자 () ② 여자 ()
2. 현재 본인의 나이를 √ 표시 해주세요.
① 13세 () ② 14세 () ③ 15세 () ④ 16세 ()
⑤ 17세 () ⑥ 18세 () ⑦ 19세 () ⑧ 20세 이상 ()
3. 소속된 학교 및 기관은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 표시 해주세요)
① 중학교 () ② 인문계 고등학교 ()
③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④ 대안학교 ()
⑤ 검정고시 학원 () ⑥ 직업학교 ()
⑦ 직업훈련기관 () ⑧ 소년원 학교 ()
⑨ 꿈드림센터 () ⑩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
4.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 표시 해주세요)
① 천안시 () ② 공주시 () ③ 보령시 ()
④ 아산시 () ⑤ 서산시 () ⑥ 논산시 ()
⑦ 계룡시 () ⑧ 당진시 () ⑨ 금산군 ()
⑩ 부여군 () ⑪ 서천군 () ⑫ 청양군 ()
⑬ 홍성군 () ⑭ 예산군 () ⑮ 태안군 ()
5.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모두 √ 표시 해주세요)
① 친아버지 () ② 친어머니 () ③ 새아버지 ()
④ 새어머니 () ⑤ 할머니나 할아버지 () ⑥ 친척 ()
⑦ 형제자매 () ⑧ 친구 또는 선후배 ()
⑨ 청소년보호자(쉼터,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소년원 등) ()
⑩ 혼자 살고 있다 () ⑪ 기타 (구체적으로 누구와?)
6. 부모님의 출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 표시 해주세요)
① 두 분 모두 한국인 () ② 두 분 모두 외국인 () ③ 한 분만 외국인 ()
④ 두 분 모두 새터민 () ⑤ 한 분만 새터민 () ⑥ 두 분 모두 중국교포 ()
⑦ 한 분만 중국교포 () ⑧ 모르겠다. ()
7.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습니까? (한 가지만 √ 표시 해주세요)
① 매우 어려운 편이다 () ② 어려운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사는 편이다 ()
⑤ 매우 잘사는 편이다 ()

8. 국가나 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모두 √ 표시해주세요)

- ① 없다 () ② 기초생계비지원 ()
 ③ 의료비지원 () ④ 급식비지원 ()
 ⑤ 긴급복지지원(가장의 사망, 질병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원받는 경우) ()
 ⑥ 기타 () ⑦ 모르겠다 ()

9.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물질적 지원(예-학비, 학원비, 용돈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 표시해주세요)

- 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② 부족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받고 있는 편이다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

10.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정서적 지원(예-고민상담, 대화, 관심, 칭찬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 표시해주세요)

- 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② 부족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받고 있는 편이다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

11.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 표시해주세요)

- ① 없다 () ② 1명 ()
 ③ 2-3명 () ④ 4명 이상 ()

12.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13.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1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1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 다음은 여러분이 만 18세 이전에 여러분과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입니다. 잘 읽고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면 0점, 있으면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없음	드물게 있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16. 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 (예: 멍청이, 똥뽕이)	0	1	2	3
17. 나에게 “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라고 말한 적이 있다.	0	1	2	3
18. 가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다.	0	1	2	3
19. 가족 중에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나 심한 말 등을 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	0	1	2	3
20. 나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21. 세계 맞아 멍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0	1	2	3
22. 세계 맞아 병원에 간 적이 있다.	0	1	2	3
23. 회초리 이외에 물건(허리띠, 몽둥이)으로 맞은 적이 있다.	0	1	2	3
24. 나는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25.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너무 많이 맞은 적이 있다.	0	1	2	3
26.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	0	1	2	3
27. 가족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28. 우리 가족들은 서로 가깝다고 느꼈다.	0	1	2	3
29. 우리 가족은 나를 지지해준다고 느꼈다.	0	1	2	3
30.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배려한다고 느꼈다.	0	1	2	3
31. 나에게 제때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	0	1	2	3
32. 가족들에게 나는 충분한 보살핌을 받았다.	0	1	2	3
33. 부모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0	1	2	3
34. 내가 씻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어도 내버려둔 적이 있다.	0	1	2	3
35.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0	1	2	3
36. 강제로 신체(손, 엉덩이, 가슴, 성기 등)를 접촉한 적이 있다.	0	1	2	3
37. 시키는 대로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0	1	2	3
38.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거나, 내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내 옷을 벗겨서 내 몸을 바라본 적이 있다.	0	1	2	3
39. 나에게 성교를 요구하거나 성교를 했다. (구강성교, 항문성교 포함)	0	1	2	3
40. 나는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	0	1	2	3

※ 각각의 문장들이 지난 한 주 동안의 나에 대해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기록하세요. 확실치 않더라도 건너뛰지 말고 반드시 표시 하세요. 정답도 틀린 답도 없습니다. 전혀 없으면 0을, 약간 있으면 1을, 많이 있으면 2를 √ 표시 해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없음	약간 있음	많이 있음
41. 나는 공상에 잠긴다.	0	1	2
42.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 때 “멍해진다.”	0	1	2
43. 나는 집중하기가 어렵다.	0	1	2
44. 나는 이전에 일어났던 나쁜 일에 대해 생각한다.	0	1	2
45. 나는 이전에 일어났던 나쁜 일을 잊으려고 노력한다.	0	1	2
46. 나는 이전에 일어났던 나쁜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피한다.	0	1	2
47. 나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한다.	0	1	2
48. 나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한다.	0	1	2
49. 나는 내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어린 행동을 한다.	0	1	2
50. 어떤 일들이 나를 언짢거나 화나게 한다.	0	1	2
51. 밤에 잠들기 어렵다.	0	1	2
52. 나는 기분 나쁜 꿈이나 악몽을 꾸다.	0	1	2
53. 나는 머리가 아프다.	0	1	2
54. 나는 배가 아프다.	0	1	2
55. 나는 몸이 안 좋다, 혹은 통증이 있다.	0	1	2
56. 나는 피곤하다, 혹은 에너지가 부족하다.	0	1	2
57. 나는 나 혼자라고 느낀다.	0	1	2
58. 나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이상하거나 다른 것 같다.	0	1	2
59. 나한테 뭔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다.	0	1	2
60.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내 탓인 것 같다.	0	1	2
61. 나는 불운을 불러오거나 재수가 없게 하는 사람이다.	0	1	2
62. 나는 슬프거나 우울하다	0	1	2
63. 나는 그다지 뭔가를 하고 싶지 않다.	0	1	2
64. 내 미래는 안 좋을 것 같다.	0	1	2
65. 나는 일어날 지도 모르는 나쁜 일들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0	1	2
66. 나는 신경질적이거나 펄쩍 뛴 정도로 잘 놀란다.	0	1	2

※ 다음 문항은 여러분 자신의 일상적 감정이나 태도, 성격을 나타내는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본인이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에 √ 표시 해주세요.

문항내용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7. 나는 친구들을 너그럽게 대한다.	1	2	3	4
68. 나는 당황하더라도 빨리 안정을 되찾는다.	1	2	3	4
69. 나는 새롭고 낯선 상황을 다루는 것을 즐긴다.	1	2	3	4
70. 나는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편이다.	1	2	3	4
71. 나는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을 맛보는 것을 즐긴다.	1	2	3	4
72. 남들은 나를 매우 활기찬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73. 나는 잘 아는 곳이라고 해도 매번 다른 길로 가보는 걸 좋아한다.	1	2	3	4
74. 나는 남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1	2	3	4
75. 나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호감이 간다.	1	2	3	4
76. 나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서 행동에 옮기는 편이다.	1	2	3	4
77. 나는 새롭고 색다른 일을 하기 좋아한다.	1	2	3	4
78. 내 일상생활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하다.	1	2	3	4
79. 나는 매우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다.	1	2	3	4
80. 나는 누군가에게 화가 나도 곧 풀어버린다.	1	2	3	4

※ 여러분이 “대인관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렵다”라고 느낀 정도를 √ 표시해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81.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82.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1	2	3	4	5
83. 다른 사람들에게서 정당한 요구를 하기 어렵다.	1	2	3	4	5
84.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렵다.	1	2	3	4	5
85.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 주장을 내세우기 어렵다.	1	2	3	4	5
86.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가 어렵다.	1	2	3	4	5
87. 다른 사람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가 어렵다.	1	2	3	4	5
88.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1	2	3	4	5
89.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1	2	3	4	5
90. 다른 사람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기가 어렵다.	1	2	3	4	5
91.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92. 다른 사람들을 너무 어려워한다.	1	2	3	4	5
93.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하기 어렵다.	1	2	3	4	5
94.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95.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나 애정을 표현하기 어렵다.	1	2	3	4	5
96.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당하지 못하다.	1	2	3	4	5
97.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피한다.	1	2	3	4	5
98.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1	2	3	4	5

※ 다음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고, 아래 문항에서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해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없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9. 사소한 좌절감에도 화가 나거나 쉽게 눈물이 난다.	0	1	2	3
100. 화가 나면 진정하기가 어렵거나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힘들다.	0	1	2	3
101. 지속적으로 화가 나고 스스로 진정시킬 방법을 찾기 힘들다.	0	1	2	3
102. 나는 거의 늘 화가 나 있는 기분이다.	0	1	2	3
103. 다른 사람을 해치는 생각이나 상상을 한다.	0	1	2	3
104. 화를 통제하기 어렵다.	0	1	2	3
105.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람들이 알 것 같아서 걱정한다.	0	1	2	3
106. 충동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한다.	0	1	2	3
107. 나는 안전에 대해 부주의하다고 생각한다.	0	1	2	3
108. 일부러 자신을 해지려고 한 적이 있다. (예 : 자해 등)	0	1	2	3
109.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110. 성관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노력한다.	0	1	2	3
111. 일반적인 신체 접촉이 불쾌하다.	0	1	2	3
112. 성적인 접촉이 불쾌하다.	0	1	2	3
113. 성관계를 일부러 피하려고 한다.	0	1	2	3
114. 내가 원하는 것 보다 더 많이 성에 관한 생각을 한다.	0	1	2	3
115. 나도 모르게 성적 충동에 이끌린다.	0	1	2	3
116. 내가 위험에 빠질 것을 알면서 위험하게 성관계를 한다.	0	1	2	3
117.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시킨다. (예 : 위험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 가는 것 등)	0	1	2	3
118.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기억나지 않거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혼란스럽다, 혹은 실제로 일어났는지 불확실하다.	0	1	2	3
119. 일상생활 중 시간이 가는 것을 잘 모른다.	0	1	2	3
120. 무섭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멍해진다.	0	1	2	3

문항내용	전혀 없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1. 때때로 꿈을 꾸는 것처럼 삶이 매우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0	1	2	3
122.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내 행동을 조정한다고 느껴진다.	0	1	2	3
123.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력이 없다고 느껴진다.	0	1	2	3
124.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잘못되어서 고칠 수 없다고 느낀다.	0	1	2	3
125. 모든 것에서 만성적으로 죄책감을 느낀다.	0	1	2	3
126.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이 창피하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숨기거나 거짓 이야기를 한다)	0	1	2	3
127.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매우 다르고, 분리된 것 같다.	0	1	2	3
128. 나의 상황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같다.	0	1	2	3
129. 사람을 믿는 것이 어렵다.	0	1	2	3
130.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한다.	0	1	2	3
131. 대인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0	1	2	3
132. 인생에서 계속 힘든 사건을 경험한다.	0	1	2	3
133. 내가 피해 입은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0	1	2	3
134. 특별한 원인 없이 배가 아프거나 토하거나 매쓰거움, 설사, 폭식과 같은 문제가 있다.	0	1	2	3
135. 특별한 원인 없이 숨이 가쁘거나 가슴 두근거림, 가슴 통증,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으로 고통스럽다.	0	1	2	3
136. 특별한 원인 없이 기억, 목소리가 안 나옴, 눈앞이 흐려짐, 기절, 발작, 근육의 마비나 근육통의 문제로 고통스럽다.	0	1	2	3
137. 특별한 원인 없이 성기가 아프거나(남성의 경우) 발기가 되지 않음(여성의 경우) 월경 전에 심하게 긴장하는 문제로 고통스럽다.	0	1	2	3
138.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진다.	0	1	2	3
139.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0	1	2	3
140. 공부에서 만족을 느낄 수 없다.	0	1	2	3
141. 삶이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한다.	0	1	2	3
142. 종교나 세상에 대한 믿음에 대해 변화가 있다.	0	1	2	3
143. 특별한 원인 없이 팔이나 다리, 등, 소변볼 때 머리카 다른 신체부위에서 만성적인 고통이 있다.	0	1	2	3

144.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또는 가까운 친구가 자살로 사망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145. 나는 사고(예: 자동차사고, 열차사고나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사망한 친구, 가족 등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수고 많으셨습니다.

★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